

발간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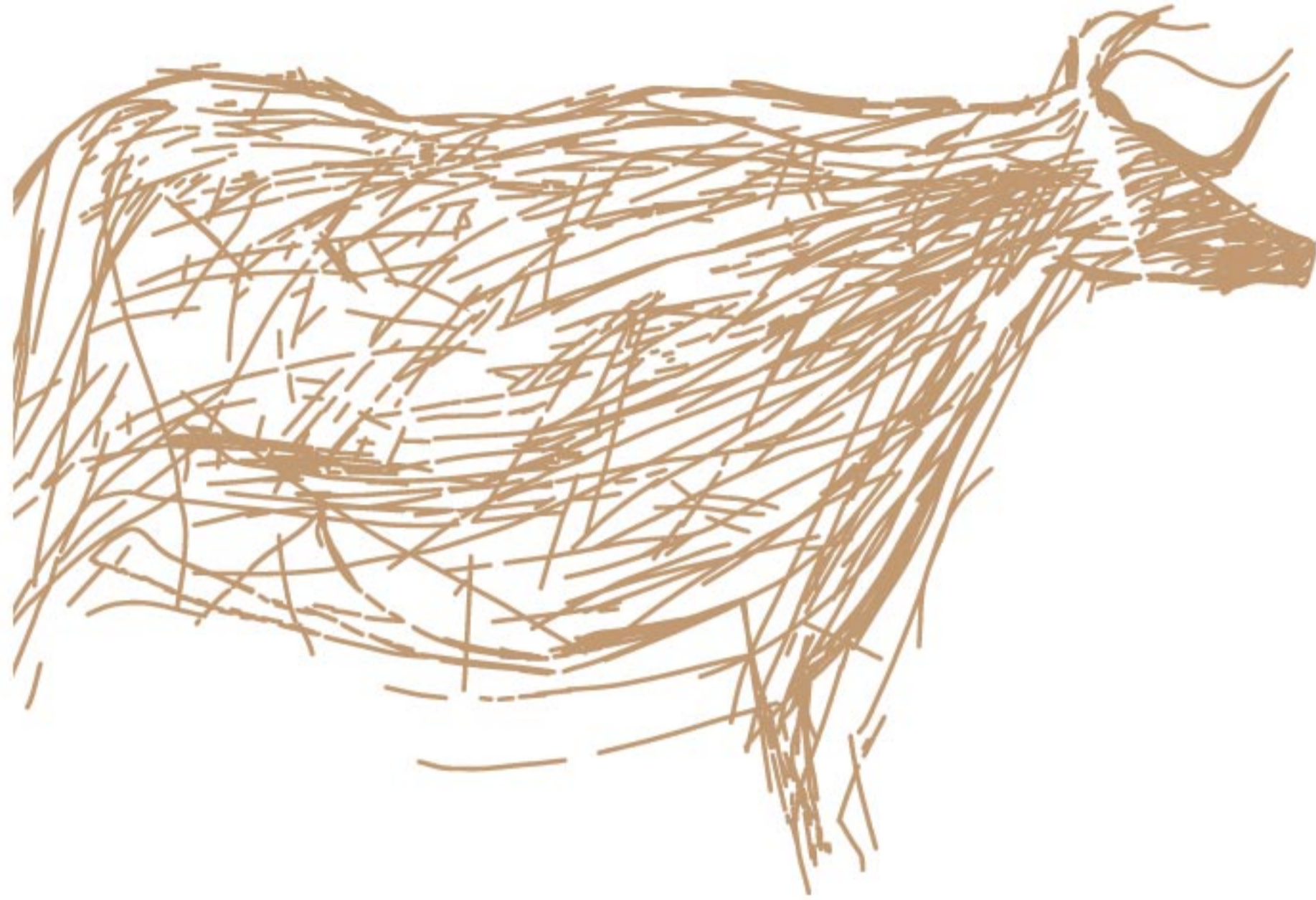
57-6310000-000452-01



# 기적의 바위그림, 코아계곡의 암각화

Arte Rupestre do Vale do Côa





# 기적의 바위그림, 코아계곡의 암각화

Arte Rupestre do Vale do Côa

#### 일러두기

1. 이 도록은 울산암각화박물관 2015년도 특별전 “기적의 바위그림, 코아 계곡의 암각화”의 전시도록이다.
2. 도록에 실린 사진과 도면 등의 저작권은 명시된 소유자들에게 있다.
3. 암각화박물관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제공받은 원고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4. 지명과 인명, 용어 등은 원문 원고를 바탕으로 삼았으며, 정확한 발음 등을 알 수 없는 것은 영문을 기준으로 삼았다.

\* 본 도록은 암각화박물관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다른 용도로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한다.

# 기적의 바위그림, 코아계곡의 암각화

Arte Rupestre do Vale do Côa

# “기적의 바위그림 코아 계곡의 암각화” 특별전

## Exposição “Arte Rupestre do Vale do Côa”

### 포르투갈 Portugal

#### 전시총괄 **Comissário da Exposição**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 António Martinho Baptista

#### 전시진행 **Vice-Comissário da Exposição**

안토니오 바타르다 페르난데스 António Batarda Fernandes

#### 원고 **Textos**

안토니오 바타르다 페르난데스 António Batarda Fernandes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 António Martinho Baptista

루이스 루이스 Luís Luís

티에리 오브리 Thierry Aubry

#### 사진 **Fotos**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 António Martinho Baptista

호세 리베리오 교수 사진 아카이브 Arquivo Prof. José Ribeiro

조지 S. 바로스 Jorge S. Barros

호세 파울로 루아스 José Paulo Ruas

티에리 오브리 Thierry Aubry

#### 도면 **Desenhos**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 António Martinho Baptista

포르투갈국립암각화연구센터 CNART

페르난도 바르보사 Fernando Barbosa

루이스 루이스 Luís Luís

마리오 바렐라 고메스 Mário Varela Gomes

티에리 오브리 Thierry Aubry

#### 지도 **Mapas**

페르난도 바르보사 Fernando Barbosa

조르게 삼파이오 Jorge Davide Sampaio

티에리 오브리 Thierry Aubry

페나스코사 3번 바위 복제 호세 루이스 루소 Réplica rocha 3 da Penascosa: José Luís Russo

전시유물 3D 모델링 드라이스 옥토펜탈라 Modelos 3D das placas de arte móvel e peças líticas: Dryas Octopetala

### 한국 Coreia

기획총괄 이상목 Coordenador: Sangmog Lee

전시진행 신주원 Exposição: Joowon Shin

학술대회 최윤진 Simpósio: Younjin Choi

시설지원 강원만 Apoio Técnico: Wonman Kang

행정지원 임규수, 김진순 Apoio Administrativo: Kyusu Im, Jinsoon Kim

전시보조 김양선, 문영준 Assistentes: Yangseon Kim, Youngjun Moon

# “기적의 바위그림 코아 계곡의 암각화” 전시도록

## Catálogo da Exposição “Arte Rupestre do Vale do Côa”

### 편집인 Editores

이상목 Sangmog Lee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 & 안토니오 바타르다 페르난데스 António Martinho Baptista e António Batarda Fernandes

### 도록원고 Textos

안드레 토마스 산토스 André Tomás Santos

안토니오 바타르다 페르난데스 António Batarda Fernandes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 António Martinho Baptista

안토니오 폰테 António Ponte

조르게 삼파이오 Jorge Davide Sampaio

루이스 루이스 Luís Luís

마리오 레이스 Mário Reis

티에리 오브리 Thierry Aubry

### 사진 Fotografias

안토니오 바타르다 페르난데스 António Batarda Fernandes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 António Martinho Baptista,

호세 리베리오 교수 사진 아카이브 Arquivo Prof. José Ribeiro

제이미 안토니오 Jaime António

조지 S. 바로스 Jorge S. Barros

조르게 삼파이오 Jorge Davide Sampaio

호세 파울로 루아스 José Paulo Ruas

마리오 레이스 Mário Reis

티에리 오브리 Thierry Aubry

### 도면 Desenhos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 António Martinho Baptista

포르투갈국립암각화연구센터 CNART

페르난도 바르보사 Fernando Barbosa

루이스 루이스 Luís Luís

마리오 바렐라 고메스 Mário Varela Gomes

티에리 오브리 Thierry Aubry

### 지도 Mapas

페르난도 바르보사 Fernando Barbosa

조르게 삼파이오 Jorge Davide Sampaio

마리오 레이스 Mário Reis

티에리 오브리 Thierry Aubry

발행처 **울산암각화박물관 Edição de Ulsan Petroglyph Museum**  
254, Bangudaean-gil, Dudong-myeon, Ulju-gun, Ulsan, Korea TEL. +82-52-229-4797 FAX. +82-52-229-4799  
<http://bangudae.ulsan.go.kr/>

디자인 제작 **테이크엠 Design & Publicação: TakeM takemdesign.com**

발행일 2015. 9. 8

목차 Índice

|                                                                                     |              |                |                           |     |
|-------------------------------------------------------------------------------------|--------------|----------------|---------------------------|-----|
| 인사말                                                                                 | Prefácio     | 이상목            | Sangmog Lee               | 09  |
| 축사                                                                                  | Apresentação | 안토니오 폰테        | António Ponte             | 13  |
| 전시개요                                                                                | Apresentação |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 | António Martinho Baptista | 16  |
| <hr/>                                                                               |              |                |                           |     |
| 코아 계곡의 암각화 고고학                                                                      |              |                |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            | 29  |
| A arqueologia rupestre no Vale do Côa                                               |              |                | António Martinho Baptista | 33  |
| <hr/>                                                                               |              |                |                           |     |
| 코아 계곡 고고학 공원과<br>암각화 유적 방문 시스템                                                      |              |                |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            | 36  |
| Parque Arqueológico do Vale do Côa (PAVC): O sistema de visita aos sítios rupestres |              |                | António Martinho Baptista | 41  |
| <hr/>                                                                               |              |                |                           |     |
| 코아 계곡의 최초 공동체                                                                       |              |                | 티에리 오브리                   | 43  |
| Premières communautés et art paléolithique de la Vallée du Côa                      |              |                | Thierry Aubry             | 60  |
| <hr/>                                                                               |              |                |                           |     |
| 코아 계곡의 구석기 미술                                                                       |              |                | 안드레 산토스                   | 68  |
| A arte paleolítica do Vale do Côa: breve síntese                                    |              |                | André Tomás Santos        | 80  |
| <hr/>                                                                               |              |                |                           |     |
| 전쟁의 미술, 기원전 천년 끝자락의 코아 계곡                                                           |              |                | 루이스 루이스                   | 90  |
| Uma arte da guerra, O Vale do Côa no final do I Milénio a.C.                        |              |                | Luís Luís                 | 106 |
| <hr/>                                                                               |              |                |                           |     |

|                                                                                                                      |                           |     |
|----------------------------------------------------------------------------------------------------------------------|---------------------------|-----|
| 코아 암각화와 고고학 조사                                                                                                       | 마리오 레이스                   | 115 |
| Prospecção arqueológica e a evolução do inventário da arte rupestre do Côa                                           | Mário Reis                | 135 |
| 야외 암각화의 보존<br>코아 계곡 암각화 실험 사례                                                                                        | 안토니오 바타르다 페르난데스           | 149 |
| Open-air rock-art conservation: Present issues and possible solutions with regard to the Côa Valley rock-art complex | António Batarda Fernandes | 158 |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 안토니오 바타르다 페르난데스           | 164 |
| The Côa Museum and Archaeological Park Public outreach efforts through the use of online platforms                   | António Batarda Fernandes | 178 |
| 코아 미술 25,000년 이후                                                                                                     | 조르게 다비데 삼파이오              | 187 |
| A arte no Côa, 25 000 anos depois                                                                                    | Jorge Davide Sampaio      | 194 |
| 코아 박물관                                                                                                               |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            | 195 |
| O Museu do Côa                                                                                                       | António Martinho Baptista | 206 |
| 참고문헌 Bibliografia                                                                                                    |                           | 212 |

# 코아 암각화와 고고학 조사

Prospecção arqueológica e a evolução do inventário da arte rupestre do Côa

마리오 레이스

Mário Reis

## 1. 머리말

코아 암각화를 생각할 때 “수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5년 코아 댐 건설 도중에 발견된 암각화를 보존할 것인가, 댐 건설을 계속할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암각화 발견 소식이 포르투갈 언론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학술기관과 대중들에게 “코아 암각화”라는 표현은 많은 것이 있는 유적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었고 포르투갈, 유럽, 세계적 맥락 속에서 암각화의 질과 고품스러움, 독창성 등이 더해졌다. 결국 1995년 말 댐 건설을 중단하고 코아 계곡에 고고학 공원을 설립하겠다는 결정으로 논쟁이 끝났다. 이로써 코아 미술과 그 맥락에 관한 지속적이고도 심도 깊은 연구가 가능해졌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구를 통해서 많은 수의 유적, 바위, 그림의 다양성과 방대함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 2. 발견의 진전

1994년 말, 포르투갈 북동부 내륙에 위치한 코아강 하류에서 구석기시대 야외 암각화가 발견되자 학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 엄청난 면적과 함께 고고학 분야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된 적이 없었고 대부분 이전 연구들은 암각화와는 다른 분야들이었다. 이 지역 암각화에 대한 언급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학계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고 구석기시대 암각화뿐만 아니라 역사시대 그림들조차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1980 ~ 90년대 이 지역에서 두 개의 댐 건설이 추진되었는데 하나는 포시노 댐이고 다른 것이 코아 댐이다. 댐 건설로 인해 체계적인 고고학 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새로운 암각화들이 발견되어 코아 고고학 공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 문헌자료 속에 암각화

브라간사 지역의 역사와 고고학에 관한 프란시스코 마누엘 알비스의 기념비적인 작업에서 1938년 코아 미술에 관한 첫 기록을 볼 수 있다. 빌라 노바 드 포츠 코아의 암각화에 대한 3개의 간략한 기록이 있다(ALVES 1938, 282). 카스텔로 멜로르 지역 오늘날 “발렌타인의 벽”이라고 알려진 거리에서 1932년 대량의 문헌이 발견되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그림들과 식물, 드물게 동물과 의인화된 형상들은 이미 당시에 새겨져 있던 그림이다. 또 자세하지 않은 두 개의 문헌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빌라 노바 드 포츠 코아의 오래된 길에 있던 암각화에 관한 것으로 두 개의 편자모양 무늬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캐나다 두 인페르노 지역에 관한 것으로 바위에 새겨진 십자무늬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캐나다 두 인페르노 바위 7에 있는 십자가로 알려진 그림이다. 1940년 빌라 노바 드 포츠 코아의 카스텔로 멜로르의 한 박사는 이 암각화를 다시 언급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까지는 하지만 새로운 것은 없다(ANDRADE 1940, 504). 다만 문헌에서 십자무늬만을 다룬 것이 다소 의외이다. 왜냐하면 이 바위에 수많은 암각화가 있기 때문이다. 바위에 1753과 1758이란 두 개의 연도, 십자형상, 비둘기, 태양, 서명, 무장한 인물상 등이 있다. 그는 여러 개 십자그림 중에서 오직 하나만을 언급한 것이다.

## 포시노 댐과 1982년의 발견

간략한 문헌기록과 코아 암각화의 첫 발견 사이의 공백, 1940년 ~ 1980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코아 계곡은 포르투갈 고고학계에서 거의 잊혀져 있었다. 그러다가 1975년에서 1983년 건설된 포시노 댐으로 인해 1982년은 코아 암각화를 학문적으로 다룬 최초의 시기가 되었다. 도우루와 코아강 입구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댐 저수지는 암각화가 분포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댐 건설이 추진되면서 고고학 영향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발레 다 카사 지역에서 첫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코아 입구와 포시노 댐 사이 중간 지점으로 도우루강 원편 하안단구에 해당한다. 프란시스코 드 산데 레무스 책임으로 편성된 미뉴대학교 고

고학 조사팀은 1982년 중반 5개의 암각화를 발견하였다. 같은 해 9월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가 23개 노두의 바위에서 암각화를 발견해 연구를 시작하였고 보호캠페인도 이루어졌다.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많은 암각화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철기시대의 수많은 그림들은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에서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암각화를 찾아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포츠 코아 지역에서 코아강을 가로지르는 철도교 인근 도우루에서도 근대 조각이 새겨진 6개의 암석이 발견되었다. 포츠 코아의 암석 6개, 발레 다 카사 유적의 바위 23은 결국 포시노 댐에 수장되었다(BAPTISTA 1983). 1982년 시작한 조사에서 구석기시대 암각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 코아 댐에 따른 초기 조사

포시노 댐이 완공되고 1991년 코아 댐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1989년부터 프란시스코 산데 레무스 책임 아래 첫 조사가 이루어졌다(LEMOS 1994). 그러나 2주일의 짧은 기간 동안 빈약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고고학 조사는 다소 부실한 결과로 이어졌다. 선사시대 암각화가 있는 파피아의 4개 바위를 포함해 3지점이 강조되었다. 제작 기법은 단지 두 암석을 통해 구분했는데, 하나는 발레 드 피게이라 바위 3으로 암면에 다수의 그림이 깊게 새겨진 것 그리고 다른 것은 캐나다 두 인페르노 하구에 있는 발레 다 카사의 가는 선각이 있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사항이 기록되지 않았다.

### 코아 미술의 공개 : 1991년 ~ 1996년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넬슨 헤반다가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 마리오 바렐라 고메즈, 밀라 시몬스 지 아브레우를 현장에 초대하면서 코아 암각화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1994년 11월이었다. 열띤 논쟁이 벌어져 결국 댐 건설은 중단되었고 유적은 코아 계곡 고고학 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당시 코아 암각화에 대한 공개와는 별개로 하나의 미술 집합체를 발견하여 대중들에게 인식시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술기관으로 하여금 국제적 시야를 갖게 하여 코아 암각화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캐나다 두 인페르노에서 구석기 암각화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91년 말 경이었다. 1996년 말 정부의 공식조사가 완료되었고, 1997년 보고서가 작성되어, 결국 댐 공사 중단 결정으로 코아 유적이 보호될 수 있었다(ZILHÃO 1997).

1990년 코아 고고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1994년 말, 논쟁이 벌어질 때까지 넬슨 헤반다가 이 지역 고고학 프로젝트를 수행했었다. 이후 두 명의 전문가 안토니오 마르티노 밥티스타와 마리오 바렐라 고메즈가 연구를 진행하였고 1997년 보고서 출판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 1991년 말에서 1996년 말 사이 중요한 첫 발견이 있었다. 1991년 11월 20일, 넬슨 헤반다가 캐나다 두 인페르노 바위 1에서 구석기 동물 그림을 발견한 것이다. 이때부터 코아 계곡 고고학 공원은 문화유산 조사에 몰두하였고 암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록이 담긴 암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견되었다. 1992년 4월, 댐 건설과 동시에 강 하구 주변에서 구석기시대 선각이 새겨진 2개의 암석이 발견되었다. 1993년 2월, 리베이라냐에서 그림이 출토된 주거지를 시작으로 1993년에서 1994년 사이 유적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이어 4월에는 댐 건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메이자파오와 캐나다 두 아멘도알 지역에서 첫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1993년 9월 코아의 코퍼 댐 건설로 포시노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졌다. 캐나다 두 인페르노와 레고 다 비데 지역 부근에서 약 30개의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두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는 대부분 구석기시대 것이지만 근대 암각화도 있었다. 1993년 11월, 이미 발견되었던 암각화를 정리하기 위해 코아 고고학 공원 팀과 1982년 발레 다 카사를 조사



사진 1. 영원히 풍경에 간직될 거대한 코아 댐의 건설 속 유적.

Figura 1. Os vestígios, indelevelmente marcados na paisagem, da construção da imensa barragem do Côa (fotografia de Mário Reis).

한 페르난도 바르보사가 함께 하였다. 새로운 발견에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약 1년 동안 캐나다 두 인페르노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기록하고 연구하는데 집중하였다.

1994년 11월, 논쟁이 시작될 당시 발레 드 피게이라에서 구석기 그림이 있는 2개의 암석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뒤이어 발레 비데이로에서 1개, 리베이라 드 피스코스에서 2개의 암석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바위 1로 머리가 서로 뒤엉켜 있는 말의 형상이고, 다른 하나는 바위 2로 의인화된 것처럼 보이는 신의 형상이 겹쳐진 그림이다.(BAPTISTA & GOMES 1997; 308-311). 1994년 말 고고학 공원 팀의 활약으로 12개 유적과 76개의 암각화 목록이 더해졌다(REBANDA 1995a; 1995b). 안토니오 마르티노 밍티스타와 마리오 바렐라 고메즈의 감독 아래 야간에 인공조명을 사용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암각화뿐만 아니라 발레 드 카브로즈 같은 새로운 유적 조사도 병행하였다. 깊은 계곡을 탐사하는데 지역 주민의 협조가 있었다. 1995년에 파피아에서 구석기시대 그림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암석을 발견하였다. 같은 해 코아 지역에서 페나스코사, 키타 다 바르카, 파리지우 유적이 발견되었다. 파리지우 유적에서 암석 2개가 발견되었는데, 포시노 댐에 의해 퇴적물이 덮인 바위 1에서 작은 선각이 있는 암면의 윗부분이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다. 당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1999년이 되어서야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발레 두 포르노와 브로에이라에서 구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그림을 발견했다. 같은 해, 포츠 코아에서 암각화가 새겨



사진 2. 발레 드 피게이라(Vale de Figueira), 왼쪽, 발레 비데이로(Vale Videiro), 오른쪽, 코아 미술의 존재가 알려지기 직전 발견되었던 첫 번째 장소들.

진 많은 암석들이 발견되었다.

1995년 코아 지역 외에도 넓은 범위에 걸쳐 암각화가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탐색이 있었다. 코아와 발레 다 카사 사이에 있는 도우루 왼쪽 강둑에서 새로운 3곳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발레 드 조세 에스테베스, 베르멜로사, 발레 드 카브로즈 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선각화가 많았다. 도우루 오른쪽 강둑 리베이라 드 우로스과 발레 드 조안 에스케르도 유적에서 구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그림이 발견되었다. 1996년, 이미 발견된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었지만, 늘 새로운 암석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포츠 코아 앞 부근 오른쪽 강둑에 있는 키타 다스 툴라스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또한 나모라두스 유적에서는 후빙기 당시의 연대기를 간직한 의인화된 여러 암각화들이 있다. 그리고 1996년 말, 모두 190개에 이르는 암석과 25곳의 암각화 유적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더욱 분명해지지만, 이 숫자는 실재하는 암석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표본 추출에서 코아 암각화의 시기를 잘 드러내고 있다. 암석 분포의 특징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발견은 없었다. 그리고 중요한 유적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견되었다. 코아 미술의 주요 특징은 명확하고,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시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에 따른 연속성이 있는데, 후기구석기시대, 선사시대 말, 철기시대, 역사시대라는 4단계로 문화적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구석기시대 미술은 코아 미술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세계유산으로서 코아 계곡의 대미를 이루는 근간이다. 철기시대 미술 또한 매우 중요한데 이는 코아 미술의 두 번째로 중요한 시대이다.

### 연구의 통합 : 1997년 ~ 2004년

1997년 5월, 포르투갈 정부 산하의 새로운 고고학 기관으로 포르투갈 고고학연구소(IPA)가 창립되고, 빌라 노바 드 포츠 코아에 두 개의 독립기관인 코아 계곡 고고학 공원(PAVC)과 국립암각화연구센터(CNART)가 문을 열었다. 고고학과 암각화에 대한 조사는 국립암각화연구센터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소관 업무가 되었다. 대부분의 작업은 현장조사와 기록된 표면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매우 느리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었다. 특히 선각으로 그려진 형상과 많은 양의 암석 조사만으로도 힘이 부쳤다. 필수적인 작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지만, 탐사는 계속되었고 발견 빈도는 줄었

지만 새로운 유적과 암석들이 계속 발견되었다. 1997년 코아 하구 근방 경사지에서 모이노스 드 시마를 발견하였다. 1998년 암각화가 발견된 적이 없었던 코아 상류에서 캐나다 다 모레이라와 캐나다 두 아로보 유적이 발견되었다. 2003년 키타 다 바르카 옆 코아강 지류에 위치한 리베이라 다스 코르테스가 발견되었고 철기시대와 구석기시대의 그림을 잘 남아 있었다. 1999년 파리제우에서는 티에리 오브리 책임 하에 중요한 고고학 발굴이 진행되었는데, 포시노 댐의 일시적으로 낮아진 수위가 발굴에 도움을 주었다. 바위 1은 암각화와 토층의 층위학적 연대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고고학적 맥락에 있는 구석기시대 암각화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다(AUBRY 2009a; AUBRY & SAMPAIO 2008; 2009).

이 시기 국립암각화연구센터의 탐사 활동은 주로 이미 발견된 지역에 초점이 맞춰졌고, 대부분 지역에서 새롭게 목록에 오른 암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코아강을 따라 분포하는 지역들이 주된 탐사 대상이었는데, 2004년까지 쪼기와 갈기로 새겨진 구석기시대 암각화도 드물게 발견되었다. 2004년 말, 335점의 그림과 32개의 암석이 목록에 올랐다. 대다수가 구석기 또는 철기시대의 것이었다. 코아 미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놀랄만한 수치이지만, 전체 암각화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치이다. 2005년에는 체계화된 탐사와 함께 코아 암각화의 보다 진전된 연구가 기대되었다.

### 체계적 암각화 탐색 : 2000년 이후



사진 3. 파리제우의 바위 1의 구석기시대 암각화.

Figura 3. Conjunto de gravuras paleolíticas da rocha 1 do Fariseu (fotografia de Mário Reis).

2005년 초부터 국립암각화연구센터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특히 코아 미술에 대한 놀라운 발전이라고 여겨지는 암각화 탐색에 중점을 두었다. 처음으로 코아 암각화에 대해 지속적인 탐색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목록화된 암석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지속적이고도 빠른 새로운 탐사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를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는 2005년 초에서 2007년 말 사이이고 두 번째 단계는 2008년 초부터 지금까지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새롭게 등재된 목록과 이전 목록의 재배치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이미 공개된 지역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었고, 이전에 발견된 여러 유적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2005년 수직 암석이 분포하는 편암 경사지에 대해 대대적인 탐색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이미 발견된 암석이 17개 있었고 정상 부근에 코아 박물관 건축을 계획하던 곳이었다. 결과적으로 근대적인 농업 구조물의 조각(BAPTISTA & REIS 2008)이 있는 2개의 암석을 포함해 189여개의 암석이 확인되었다. 침수지역의 암석들과 새롭게 발견된 것들을 포함하면 모두 197개로 늘어났다. 코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그림이 있는 공간이다.

2007년 말까지 페나스코사, 키타 다 바르카, 파리제우, 발레 드 조세 에스테베스, 발레 두 포르노 혹은 발레 드 모이노스, 모이노스 드 시마, 키타 다스 툴라스 같이 비교적 좁은 면적과 덜 알려진 곳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체계화된 탐색이 진행되었다. 이들 지역의 탐색 결과에 큰 성과가 있었다. 2008년 초 코아에서 등재된 암각화는 45개의 지역 883건이다. 2004년 말 이후 수년 동안은 새로운 암석뿐만 아니라 모두 13곳에 이르는 지역을 발견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투다오, 푸모, 파소처럼 적은 곳도 있지만, 불라, 가리두, 아제나, 리베이라 다 불타처럼 중요한 지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3년 동안 조사의 우선순위는 새롭게 유적을 등재하는 일과 체계화된 탐색이었다. 2008년 이후, 코아 미술 탐색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발견된 지역의 영역 분포와 경계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오늘날까지, 큰 범위의 영역탐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역 발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동시에 탐색을 지속하고 체계적이든 그렇지 않든 지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발레 드 카브로즈 지역은 이미 발견됐던 25개 암석의 재배치로 체계적 탐색 없이도 54개로 늘어났다. 이후 여러 해에 걸쳐 92개의 암석들이 등재되었다. 코아 박물관 개관 직후인 2010년 9월에 바위 61이 발견되었으며 천여 개에 달하는 등재로 코아 미



사진 4. 코아 박물관 바로 아래에 있는 코아 계곡의 경사지와 탐색 체계화 후에 등재된 암석들의 분포. 2007년, 물속의 다수의 지점에서 암석들이 발견되었고, 그때 당시 포시노 댐 수위가 낮아졌었다.

Figura 4. A encosta da Foz do Côa, logo abaixo do Museu do Côa, e a distribuição de todas as rochas aqui inventariadas após prospecção sistemática. Os pontos dentro de água mostram rochas descobertas em 2007, quando o nível da água da albufeira do Pocinho foi reduzido (fotografia de Mário Reis).

술 탐색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최근 목록은 새로운 유적 등재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향적인 탐사와 다른 요인들, 이미 존재하는 모든 유적들을 체계화 한 결과이다. 2005년 이후 매년 새로운 암각화 유적이 발견되었고, 이미 발견되었던 유적에서도 새로운 그림이 발견되었다. 2015년 중반까지 탐사의 성과를 살펴보면, 85곳에 이르는 암각화 유적과 총 1,223여개 바위가 등재되었다. 이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후기구석기 50곳에 달하는 유적에서 총 558개, 선사시대 말은 29곳의 유적에서 66개, 철기시대는 46곳 유적에서 475건이 등재되었다. 또한 역사시대에는 52곳 유적과 265건이 등재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대가 불분명한 유적 29곳에 흩어진 101개가 등재되었다. 유산목록과 장소들은 공개되었고(BAPTISTA & REIS 2009; REIS 2011), 암각화가 있는 많은 유적을 묘사하는 작업은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다.(REIS 2012; 2013; 2014).



### 3. 탐사 방법과 기준 코아 미술 목록

코아 미술의 목록은 방대한 출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목록 수를 끊임없이 늘리기 위해 암각화 중심의 탐사가 이뤄졌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해본다.

#### 코아 미술의 탐색 방법

탐색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지역을 구분하고 범위를 정하며, 암각화 분포 범위와 특징을 중심으로 한 지역 탐색이다. 그리고 일단 암석 지역이 구분

되면, 존재하는 암석을 목록화하기 위해 각각의 유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새로운 암각화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암석, 판, 석비, 돌조각 등 암각화나 그림이 있는 것이다. 새로운 유적 탐색의 범위는 다른 이웃 지역과의 경계나 지형을 고려해 논리적인 지형학의 기준에 따른다. 코아에서 발굴된 유적은 주로 코아강이나 도우루강에 인접해있는데, 이 강들은 지류의 계곡이나 강 주변의 경사지로 특징된다. 새로운 지역을 찾는데 구축된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지형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문제로 출발점은 단순하다. 암석 노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암각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결과가 어떻더라도 그 지점을 확인한다. 비록 끝은 멀지만, 지역 탐색은 많은 진전이 있었고 이미 탐색이 완료되거나 막바지에 접어든 지역이 여럿 있다. 특히 페나스코사, 키타 다 바르카 사이, 혹은 도우루 왼쪽 강둑에서 코아의 끝부분을 꼽을 수 있다. 탐색한 지역의 범위는 지도에 표시한다. 이를 위해서 GPS를 사용하며 탐색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 탐색”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암각화의 존재여부에 대한 여지를 고려해 해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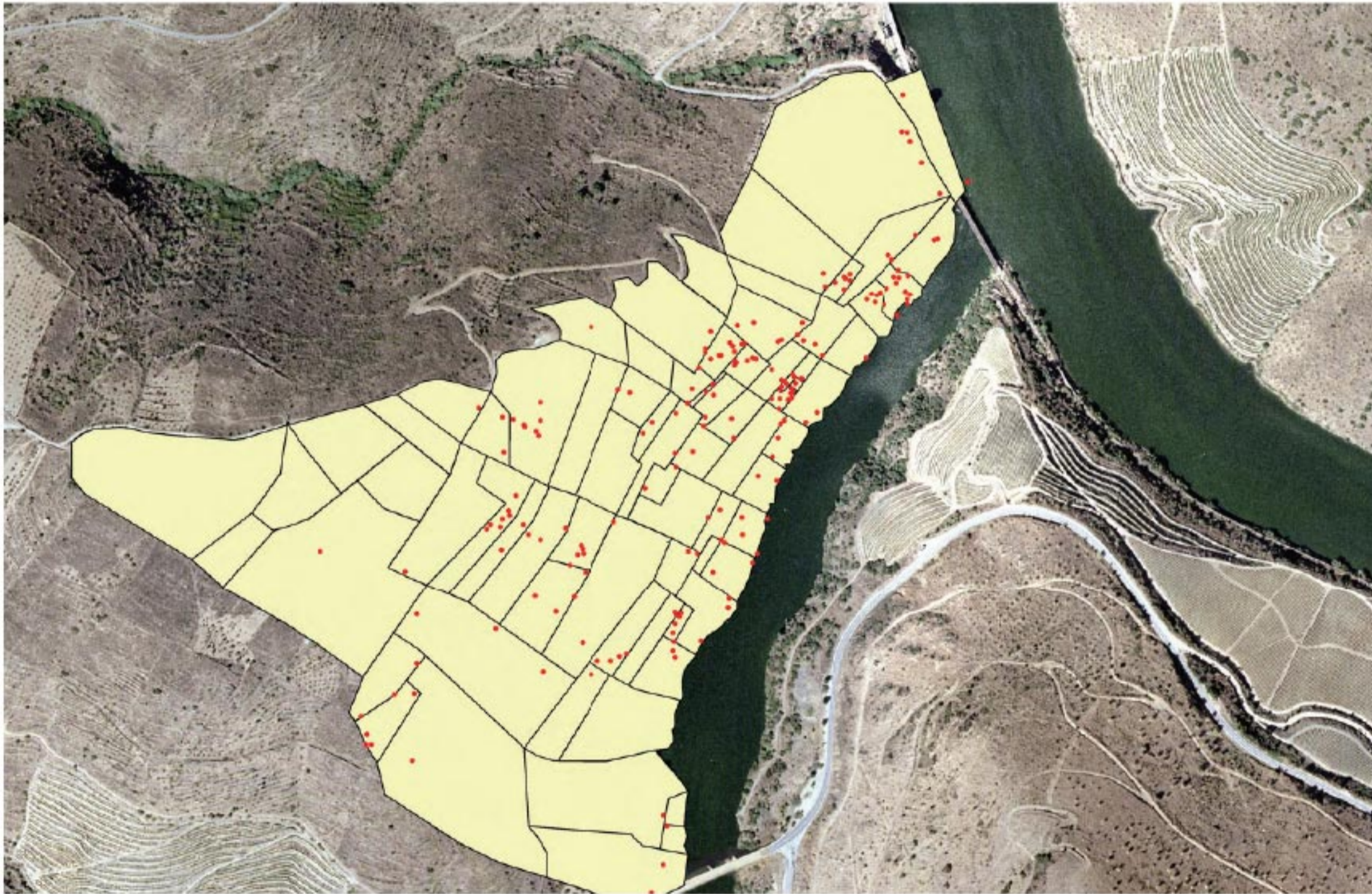


사진 5. 포츠 코아 전체 지역과 모든 암석의 위치의 체계적인 탐사를 위해 나뉜 75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Figura 5. Imagem em ortofotomapa do sítio da Foz do Côa, onde se mostram todas as 75 áreas em que se dividiu a prospecção sistemática total do sítio, e a localização de todas as rochas.

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 만약 암각화나 그림을 발견하게 되면 그 구역이 기록되고 탐색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정해진다. 만약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면, 지역은 지도는 텅 빈 곳으로 기록된다. 이는 훗날의 탐색 계획뿐만 아니라 암각화의 지역적 분포연구에서도 중요하다.

일단 암석 구역을 정의하면, 체계적인 탐색을 계획할 수 있는데 해당 지역 내 존재하는 모든 암석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지역 내 모든 암석표면 하나하나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다. 이런 체계적인 탐사는 방법론적으로 세심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의해야 하고, 순차적이고 연속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 GPS로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고 필요하다면 탐색 대상 중 몇몇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길, 벽, 물길, 구조물, 목록화된 암석과 같은 경계가 있는 것들을 선호한다. 특히 지질학적으로 이관암 분포 지역은 경사지의 상부에서 하부까지 탐색한다. 경사지는 등고선이나 자연적 혹은 인공적으로 지대를 따라 수평선상에 있다. 탐사대상 지역은 앞으로 발견하게 될 유적의 방대한 양을 좌우한다. 지역의 체계적 탐사의 범위는 보통 규모가 작다. 2005년 포츠 코아의 유적을 탐사하는데 있어 처음으로 이 방법이 적용되었다(BAPTISTA & REIS 2008). 지역은 불규칙적인 형태로 최고 높이 850m, 폭 350m 총 면적 367,600m<sup>2</sup>이다. 8개월이 거쳐 전체 지역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최고 면적 26,300m<sup>2</sup>, 최소 면적 130m<sup>2</sup>인 75개에 달하는 지역들로 나뉜다.

### 코아 미술 속 드물게 발견되는 부수적 유산 기록

먼저 “등재”와 “암석”이라는 용어를 구분하면, 코아 미술 등재요소로 암각화가 포함되겠지만, 엄격하게 말해 “암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 유산으로 암각화가 있는 암석이 포함된다. 양적으로 코아 미술 전체 목록에서 총 1,223건에서 22건에 지나지 않을 만큼 미미하다. 그러나 일부는 아주 독창적이고 중요해서 코아 미술을 특징짓고 다양함을 보여준다. “다른 등재” 유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암석은 코아 미술 목록에 통합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러스 두스 나모라두스 지역에서 80개의 새겨진 돌이 있다. 파리제우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70여개가 있다. 코아 계곡에서 발견된 35개

돌이 수장고에 있다. 목록에 올리는 목적으로 암각화가 있는 돌이 발굴될 때마다 하나의 기록으로서 취급된다.

이 부수적인 등재 대상은 코아 미술의 연대기 순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이동이 가능한 구석기, 철기시대의 미술로 특히 파리제우 지역이나(AUBRY 2009b; BAPTISTA 2008, 65-71, 104; GARCÍA DIEZ 2009; GARCÍA DIEZ & AUBRY 2002) 파소 지역의 철기시대 암각화나 올리발 도스 텔로즈(COSME 2008)에 있는 돌이 눈길을 끈다. 다른 종류는 오래된 암각화가 있거나 가끔 근대 구조물에 포함된 노두에서 떨어져 나온 돌 조각이 있다. 그 중 페나스코사, 키타 다 바르카, 투다오, 포츠 코아 지역에 있는 구석기 암각화가 있는 돌과 비나그레이라, 카사 벨라 지역에 있는 구석기 후기의 돌, 아지냐트, 발레 다 카사 지역에 있는 역사시대 돌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미 지어진 구조물에 암각이 발견되었는데 포츠 코아, 파소의 두 농업용 가건물에 있었다. 또 매우 독창적인 경우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로 추정되는 많은 훌륭한 암각화가 있는 키타 다 바르카의 안쪽 벽을 들 수 있다. 러스 두스 나모라두스는 카스텔로 멜로르 지역에 독특한 투공 무늬가 있는 암각화가 있는 80여개의 돌이 있다.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로 추정되며(COIXÃO 1996, 215; GARCÍA DIEZ & LUÍS 2003, 213-216), 다른

사진 6. 키타 다 바르카 (Quinta da Barca)의 집 내부의 벽 속의 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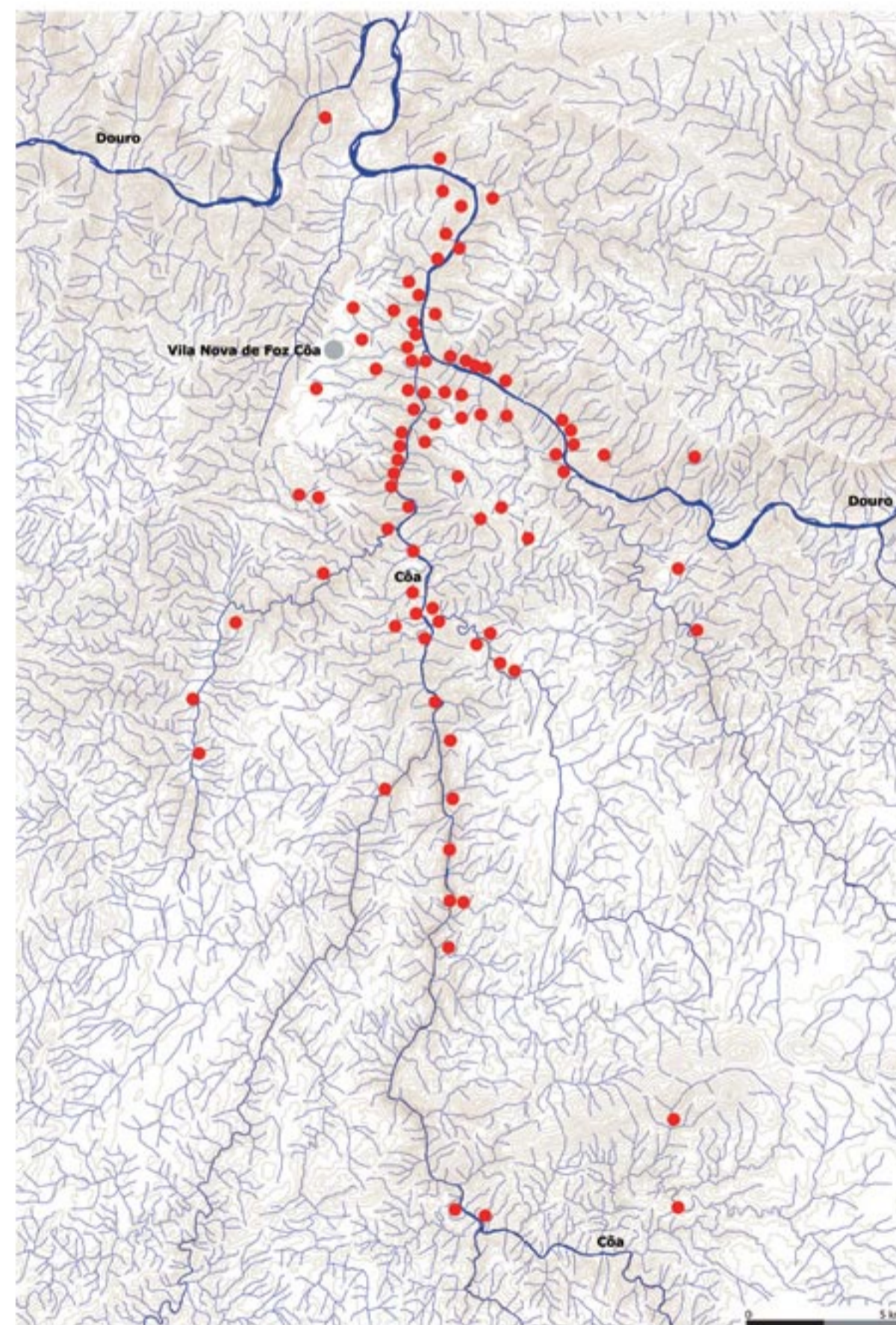
Figura 6. Representações de barcos numa das paredes internas da casa da Quinta da Barca (fotografia de Mário Reis).



건축물과 결합되어 아름다운 집합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매우 다른 종류의 암각화로 여겨지는 선사시대 말로 추정되는 암각화로 거대한 화강암 단일암체로 이베리아 반도의 북중부의 청동기시대의 멘히르 인물상 그룹의 일부로 추정된다. 이는 크루제이로 벨로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ALMAGRO 1966, 108-109), 이 지역에서 최근 2점을 더 발견되었고 그 중 하나는 기록되어있다.

#### 4. 코아 지역의 경계와 지형적 특징

1995년부터 시작된 다소 혼란스러울 정도의 많은 발견으로 코아 미술의 분포 지역은 코아와 도우루강 전역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계가 있어야 하지만 오랫동안 그 경계는 분명치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코아 미술의 분명한 범위를 설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코아 미술 분포의 주요 지역은 코아강과 도우루강에 인접한 마지막 지점이다.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코아에서 약 11~12km 하구에 암각화가 밀집한 지역이다. 페나스코사, 키타 다 바르카, 포즈 다 리베이리냐, 리베이라 다스 코르테스, 리베이라 다 볼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부 지역은 도우루에서 코아강 하류로 이어지며 발레 에스쿠로까지 약 7km 구간에 달한다. 포시노 댐과 그 근방지역에서부터 포츠 코아의 하구, 발레 드아르코스 지역까지는 약 10km에 이른다. 이 판암 노두에 있는 구석기와 철기시



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코아 미술 분포의 주요 지역은 코아강과 도우루강에 인접한 마지막 지점이다.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코아에서 약 11~12km 하구에 암각화가 밀집한 지역이다. 페나스코사, 키타 다 바르카, 포즈 다 리베이리냐, 리베이라 다스 코르테스, 리베이라 다 볼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부 지역은 도우루에서 코아강 하류로 이어지며 발레 에스쿠로까지 약 7km 구간에 달한다. 포시노 댐과 그 근방지역에서부터 포츠 코아의 하구, 발레 드아르코스 지역까지는 약 10km에 이른다. 이 판암 노두에 있는 구석기와 철기시

사진 7. 코아와 도우루강, 두 축을 따라 분포된 85곳의 등재된 코아 미술유적.

Figura 7. Distribuição de todos os 85 sítios inventariados da arte do Côa, ao longo dos dois eixos principais, os rios Còa e Douro

대, 근대의 암각화와 선사시대 말의 무늬가 뒤섞인 특징과 함께 코아 미술의 중심에 해당한다. 그러나 코아강에 또 다른 등재 지역으로 20km를 따라 위에 언급한 북쪽 그룹에 분포하고 있다. 지역들은 조금씩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로 거대한 지형을 따라 간격을 두고 있으며, 근대 암각화 일부와 더불어 대부분은 구석기시대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지역은 알토 다 코토비아, 키타 다 모레이롤라인데, 포츠 코아와 약 34km의 거리에 있으며 구석기 암각화를 지닌 이판암이 분포하는 코아 하구 앞쪽에 위치해 있다. 코아 미술은 두 축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첫 번째는 코아강으로 총 길이 약 34km 중 마지막 11~12km로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적은 수의 암석과 빈 공간이 많은 남쪽과는 대조적으로 방대한 양의 암석들이 밀집되어 있다. 두 번째는 코아 하구와 맞닿은 도우루, 포시노, 발레 드아르코스 지역 사이의 약 17km에 달하는 부분이다. 이 지역에는 코아의 마지막 부근의 특징과 유사성을 나타낸다. 이 축들의 끝은 지형학적 측면에서 또 다른 변화 구간의 시작을 나타낸다.

## 코아 미술의 지형학

코아 계곡은 하나의 자연적인 경계선으로 긴 세월동안 많은 암각화의 존재로 보아 과거에 더욱 중요했을 것이다(REIS 2014, 34-35).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은 메제타 이베리카의 끝으로 포르투갈 중북부를 뚜렷하게 표시하는 고원과 산으로 길을 내고 스페인 동쪽으로 뻗어나간다. 이렇듯 전체적인 코아 미술은 거대한 메제타 이베리카에서 마지막 지점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코아 미술의 분포 지역은 마지막 12km에 달하는 코아와 17km에 달하는 도우루 인접 지역에 접하는 중간지점과 22km 거리에 있는 코아 남쪽 강 부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서로 다른 지형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

중앙으로 흐르는 작은 하천들과 주요한 도우루와 코아강에는 많은 깊은 물길과 언덕이 있다. 강들이 교차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고원 지대라 할 수 있다. 고원의 높이는 해발 약 400m이며 도우루강은 해발 110m로 계곡의 깊이는 200 ~ 300m 사이가 된다. 전체 지역은 대부분 이판암으로 이루어졌으며, 풍화로 인해 계곡의 오른쪽 경사면은 이판암 노두가 수직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부근은 코아 미술 대부분의 암각화가



사진 8. 수직적 이판암 노두가 밀집한 빌라 노바 드 포츠 코아와 가까운 카브로즈 계곡지역.

Figura 8. O sítio de Vale de Cabrões, perto de Vila Nova de Foz Côa, com uma densa concentração de afloramentos de xisto com superfícies verticais (fotografia de Mário Reis).

밀집하고 있으며 1,223건의 등재 목록 가운데 1,174건이 있는 핵심 지역이다.

이판암이 대부분인 이 지역에서 예외적인 것은 몇 백 만년 동안 침식작용을 거치고 남은 두 곳의 석영 지대이다. 코아와 도우루강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의 중심부, 성 가브리엘 산에 해발 약 250m 높이에 달하는 석영이 있다. 또 다른 석영은 800m 높이에 달하며 도우루 오른쪽 강둑을 따라 나타난다. 그러나 이 석영들의 단층지괴가 지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소수의 암각화가 확인된다. 선사시대 말에 해당하는 그림이 있는 암석 2개와 흠이 있는 세 번째 암석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지역은, 깊은 물길에 의한 흠이 있는 고원으로 앞 지역과 비슷한 형태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고원 지대가 더 크고 연속적이며, 해발 500m에 달하는 지대로서 지질학적 다양성이 크다.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곳곳에 편암지역 일부는 해발 900m에 달하는 마로파 산맥 같은 석영이 있다. 이 화강암 지역에서 코아강은 깊고 얇은 협곡을 형성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깊은 흠으로 새겨진 파이아의 구석기시대 암각화를 볼 수 있다. 마로파 산맥지역에서는 더 많은 선사시대 말의 그림이 발견되고, 편암지대에서는 코아 구석기 암각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중심 지역에서 암각화는 드물고 그림을 동반한 암석이 많지 않아 코아 미술 전체 1,223 목록 중에서 49개만이 등재되었다.



사진 9. 중남부 화강암 지대에 있는 깊고 얇은 코아 계곡. 사진에서 파이아(왼쪽), 에르비데이로(오른쪽)가 보이는데 좀 더 개방된 지역 곳곳에 위치한다. 두 지역 모두 후기구석기 암각화가 있다.

Figura 9. O profundo e estreito vale do Côa na zona granítica a Sul da área fulcral. Na imagem são visíveis os sítios da Faia (à esquerda) e do Ervideiro (à direita), intercalados por uma área um pouco mais aberta. Ambos os sítios apresentam rochas com pinturas da Pré-história Recente e, na Faia, também duas rochas com gravuras e pinturas paleolíticas (fotografia de Mário Reis).

## 5. 맺음말

비록 20세기 동안, 코아강과 인접지인 도우루강 부근에 암각화의 존재를 인식한지 30년을 거슬러 올라갔지만, 암각화의 존재는 1994년 말 경에서야 완전히 밝혀지게 되었다. 이는 국내외에서 열띤 논쟁이 1995년 내내 코아 댐 건설 지지자와 새롭게 발견된 코아 유적 보존론자들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알려진 대로 이 논쟁은 결국 댐 건설을 중단하고, 코아 미술을 보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코아 계곡 고고학 공원을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몇 년 후에는 코아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공원과 박물관은 코아 미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수단으로 암각화와 고고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추구한다. 많은 문서와 책으로 연구 결과가 출간되었으며 대부분 박물관과 고고학공원의 홈페이지([www.arte-coa.pt](http://www.arte-coa.pt))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암각화에 관한 연구의 다양한 측면과 특징 가운데, “양”적 요소는 중요하게 인식아



사진 10. 에스쿠로 계곡(Vale Escuro)의 바위 11의 다양한 유산 중 두 마리의 구석기시대의 염소. 눈금자 위 1.7cm로 측정되는 우측 하단에 있는 것 (꼬리 끝에서부터 주둥이 끝까지)은 코아 미술에서 알려진 가장 작은 형상이며, 세계적으로도 작은 암각화 형상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지역에서 기술적으로 숙련되고 심미성을 갖춘 예술품의 좋은 예이다. 통시적으로도 코아 암각화 문양의 유형과 기교에서 다양한 요인이 있다. 이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암각화 중 하나가 되었다.

Figura 10. Dois caprinos paleolíticos de traço múltiplo da rocha 11 do Vale Escuro. O que está em baixo do lado direito, acima da escala, mede 1,7cm (da ponta da cauda à ponta do focinho), e é a figura completa mais pequena conhecida na arte do Côa, e seguramente uma das mais pequenas figuras da arte rupestre mundial. É um bom exemplo da mestria técnica e estética dos artistas da região, e um contributo mais para a grande variedade estilística, tipológica e técnica dos motivos da arte rupestre do Côa, em toda a sua longa diacronia, fazendo desta um dos mais expressivos e valiosos conjuntos da arte rupestre mundial (fotografia de Mário Reis).

되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암각화는 그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코아 계곡 고고학 공원의 탐색으로 발견되었다. 수많은 단체와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들이 참여한 이 탐색으로 코아 미술은 1994년 말 불과 수 십 여개였지만 오늘날에는 80곳이 넘는 지역에서 1,200여 개에 이르는 유산이 등재되었다. 대부분의 등재 목록은 “암석” 혹은 암각화나 암채화가 있는 노두이다. 따라서 암각화는 암채화에 비해 압도적인데, 이유는 크게 구석기 후기에서 파이어 지역에 있는 오직 하나의 암석에서 같은 무늬가 결합된 구

석기 암각화와 암채화가 있었고, 무늬가 있는 암석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암석”에 부합하지 않지만 암각화가 있는 종류의 돌, 파리제우의 구석기 유적에 있는 조약돌의 경우가 유일하고, 또는 노두에서 떨어져 나간 돌의 일부, 암각화가 있는 패널, 돌기둥 등 유산 목록은 22건이라는 소수만이 등재 목록에 올랐다. 비록 새로운 암석과 암각화의 탐색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통해 습득한 방대한 지식은 코아 미술을 좀 더 정확히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크게 중심부와 부차적인 부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 코아강의 마지막 11~12km와 도우루강이 합쳐지는 곳의 17km에서 코아강의 다른 쪽 하구로 향하는 범위에 해당한다. 이곳은 두 강의 여러 물길에 의해 만들어진 고원에 해당하는 편암 지질의 지역에 약 96%에 해당하는 방대한 암각화들이 있다. 나머지 코아 미술의 목록은 수적으로는 적지만 뛰어나고 충분한 유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코아강 22km 중북부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분포를 나타낸다. 미래에는 이 지역의 등재된 암석과 암각화의 지속적 연구 외에도, 이미 알려진 지역에서 새로운 유적을 찾거나 새로운 발견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코아 미술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더욱 넓혀줄 것이고, 탐색과 그 결과에 따라 더 대중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 1. Introdução

A “Quantidade” sempre foi uma expressão associada ao imaginário da arte do Côa. No decorrer da longa e intensa polémica pública de 1995 sobre a conservação ou não da arte rupestre recentemente descoberta no rio Côa por ocasião da construção de uma barragem, houve uma catadupa de descobertas de novas gravuras ao longo desse ano, por vezes anunciadas com grandes parangonas nos diversos meios de comunicação social portugueses. Isso fez com que, indelevelmente, para a comunidade científica e para o público não especializado, a expressão “arte rupestre do Côa” se associe necessariamente a grande quantidade de vestígios, aos quais se junta a sua qualidade, antiguidade e originalidade no contexto da arte rupestre portuguesa, europeia e mundial.

O final do ano de 1995 trouxe o acalmar da polémica e do debate, com a decisão de suspender a construção da barragem e, posteriormente, de criar o Parque Arqueológico do Vale do Côa. Com isso, foi possível iniciar mais serenamente uma investigação aprofundada e prolongada no tempo sobre a arte do Côa e os seus contextos. Essa investigação veio a confirmar em pleno a impressão inicial acerca da sua grande abundância, multiplicando extraordinariamente os números de sítios, de rochas e de motivos, num processo que ainda hoje continua.

## 2. A evolução das descobertas

Nos finais do ano de 1994, a revelação da existência de arte rupestre paleolítica ao ar livre no troço final do rio Côa, no interior Nordeste de Portugal, constituiu uma enorme surpresa para a comunidade científica portuguesa, não só pelo ineditismo do achado e pela sua inusual dimensão quantitativa, mas também porque o Côa era uma região quase desconhecida no tocante à investigação arqueológica, e quase toda a pouca investigação que se fazia na altura ou se tinha anteriormente feito versava sobre outras temáticas que não a arte rupestre. No entanto, havia já algumas referências a arte rupestre na região. Estas eram escassas, passaram despercebidas da comunidade científica, e não indicavam a existência de gravuras paleolíticas mas sim de motivos de épocas posteriores. É nos anos 80 e 90 do século XX, com o ciclo de construção das duas barragens da região, a barragem do Pocinho e a barragem do Côa, que se iniciam trabalhos arqueológicos mais sistemáticos que permitirão novas descobertas de arte rupestre e a revelação do complexo rupestre do Côa.

### As primeiras referências escritas

A primeira referência conhecida sobre a arte do Côa data de 1938, na monumental obra de Francisco Manuel Alves sobre a História e Arqueologia do distrito de Bragança. Aqui surgem numa só página três breves referências à existência de gravuras rupestres no termo de Vila Nova de Foz Côa,

(ALVES 1938, 282).

A mais extensa destas referências fala da descoberta em 1932 do que é hoje conhecido como o “muro dos Namorados”, na rua do mesmo nome, no interior da aldeia de Castelo Melhor. É indicada já nesta altura a tipologia destas gravuras, basicamente constituída por motivos geométricos, vegetalistas, e algumas mais raras figurações zoomórficas e antropomórficas.

As duas outras referências são muito curtas e pouco detalhadas. A primeira indica a existência de dois motivos em forma de ferradura gravados numa rocha existente numa antiga rua de Vila Nova de Foz Côa, e que parecem ter desaparecido. Logo a seguir, há uma referência explícita ao sítio da Canada do Inferno, futuramente tão importante, indicando-se a existência de uma cruz gravada numa rocha, da qual se mostra um desenho, pelo qual identificamos hoje esta cruz como pertencendo à bem conhecida rocha 7 da Canada do Inferno, de cronologia moderna.

Finalizando as referências bibliográficas mais antigas, em 1940 um médico de Vila Nova de Foz Côa repete a referência às pedras gravadas de Castelo Melhor (ANDRADE 1940, 504), mais detalhada mas sem acrescentar novidades.

Num último comentário sobre esta antiga referência à Canada do Inferno, pode afirmar-se que ela é tão interessante por aquilo que diz como, sobretudo, pelo que omite. Aceitando que foram as cruces da rocha 7 que estiveram na origem desta notícia, é interessante repararmos que existem numerosos outros motivos nesta rocha, todos picotados e bem visíveis, e todos igualmente modernos. Ali estão duas datas (1753 e 1758), duas cruces, uma pomba, um sol, uma assinatura, uma figura antropomórfica armada, entre outros motivos, mas apenas uma das cruces é mencionada. Por outro lado, à luz do que hoje sabemos da arte paleolítica do Côa e da Canada do Inferno em particular, e tendo em conta que a rocha 7 se encontra imediatamente em frente da rocha 1, é notória a ausência de referências sobre a existência desses motivos, particularmente os picotados, salientando-se assim o aspecto, bem conhecido de qualquer investigador, de que frequentemente só se observa o que já se conhece ou se está à espera de encontrar...

## A barragem do Pocinho e as descobertas de 1982

No longo período que medeia entre a publicação destas duas breves referências e as primeiras descobertas da arte do Côa, ou seja, entre os anos 40 e os anos 80 do século XX, o vale do Côa cai no esquecimento da arqueologia portuguesa. Será em 1982 que o ciclo rupestre do Côa verdadeiramente nasce para a ciência, por ocasião da construção da barragem do Pocinho, cuja construção foi iniciada em 1975 e terminada em 1983. Situa-se no rio Douro, alguns quilómetros a jusante da embocadura do Côa com o Douro, e a sua albufeira inunda uma parte importante da área destes rios por onde se distribuem as gravuras do complexo rupestre do Côa.

Acompanhando a construção da barragem, fizeram-se alguns trabalhos de minimização dos impactes arqueológicos, e descobre-se então o primeiro dos sítios da hoje abrangentemente chamada arte do Côa, no sítio do Vale da Casa, um terraço fluvial na margem esquerda do Douro, localizado

sensivelmente a meio do espaço entre a barragem do Pocinho e a foz do Côa. Uma equipa da Unidade de Arqueologia da Universidade do Minho, coordenada por Francisco de Sande Lemos, descobria em meados de 1982 as primeiras cinco rochas gravadas, e no mês de Setembro foi levada a cabo uma campanha de salvamento, chefiada por António Martinho Baptista, permitindo a descoberta e estudo de 23 afloramentos historiados neste sítio. Estas rochas apresentavam um leque variado de gravuras de diferentes períodos, com alguns motivos picotados da Pré-história Recente e outros de Época Moderna, mas salientando-se particularmente um amplo conjunto de rochas com numerosos motivos incisos da Idade de Ferro. Era a primeira vez que gravuras deste tipo específico apareciam e eram estudadas em território português.

Na mesma altura foram também descobertas as primeiras seis rochas do sítio da Foz do Côa, todas com picotados de Época Moderna, localizadas sobre o Douro, perto da ponte ferroviária que aqui faz a travessia do Côa. Diga-se, por fim, que todas estas rochas, tanto as 23 rochas do Vale da Casa como a seis da Foz do Côa, se encontram presentemente submersas nas águas da barragem do Pocinho, apenas sendo conhecidas pelos levantamentos então feitos (BAPTISTA 1983). É de notar, num facto que posteriormente terá importância, que nestes trabalhos de 1982 não foram descobertas gravuras paleolíticas.

## O estudo preliminar dos impactes da barragem do Côa

Após o Pocinho, a construção da barragem do Côa irá iniciar-se plenamente em 1991, mas, os trabalhos preliminares tinham-se iniciado já em 1989, e entre eles está o primeiro estudo preliminar dos impactes patrimoniais do empreendimento, realizado por Francisco Sande Lemos (LEMOS 1994).

Este estudo, realizado com poucos meios e, sobretudo, num tempo muito curto de apenas duas semanas, pretendia ser uma primeira abordagem não exaustiva sobre o património arqueológico afectado pelo empreendimento. Quanto à arte rupestre, o autor identificou então três sítios diferentes, destacando-se em primeiro lugar a descoberta do importantíssimo sítio da Faia, com as primeiras quatro rochas com pinturas da Pré-história Recente. Quanto a gravuras, identificaram-se nesta altura apenas duas rochas: uma em Vale de Figueira, com alguns motivos profundamente gravados na superfície hoje registada como rocha 3; a outra na zona da foz da Canada do Inferno, mas sobre a qual o autor não fornece grandes detalhes, a não ser que eram gravuras de traço fino, como as do Vale da Casa.

Embora este trabalho se insira já no contexto das obras da barragem do Côa, preferimos incluí-lo ainda na primeira fase dos “antecedentes” do conhecimento da arte do Côa, pois é ainda um trabalho de pequeno alcance, que não conseguirá atingir a compreensão do que é o complexo rupestre do Côa, e que não identifica gravuras paleolíticas, embora seja de destacar a descoberta do quase inacessível sítio da Faia.

Podemos assim resumir esta primeira fase: as duas referências bibliográficas da primeira metade do século XX passaram quase despercebidas e podem considerar-se irrelevantes para a tomada de

conhecimento da arte do Côa. Em 1982 e 1989 passam a ser conhecidos cinco dos actuais sítios de gravuras: Vale da Casa, Foz do Côa, Faia, Canada do Inferno e Vale de Figueira, mas apenas para o Vale da Casa e para a Faia se pode dizer que o conhecimento então obtido espelhava razoavelmente as verdadeiras características destes sítios, e em todos eles, por razões diversas, não se descobriram nessa altura gravuras paleolíticas, que todos eles possuem. Assim, e não entrando em consideração com as antigas referências bibliográficas, em 1989 conhecem-se cinco sítios rupestres com um total de 35 rochas, mas ainda nenhuma gravura paleolítica.

## A revelação da arte do Côa: 1991-1996

Como é sabido, foi em Novembro de 1994 que se deu a revelação pública da arte do Côa, desencadeada pelo convite feito por Nelson Rebanda a António Martinho Baptista, Mário Varela Gomes e Mila Simões de Abreu, para visitarem no local as gravuras descobertas por ele e pela sua equipa. A intensa polémica que se seguiu é conhecida, e estará na origem do cancelamento da barragem, criação do Parque Arqueológico do Vale do Côa (PAVC), e na classificação do conjunto da arte do Côa como Monumento Nacional e Património Mundial.

Mas, para além da revelação pública, entende-se como revelação da arte do Côa a altura em que, por um lado se dá a descoberta e primeira percepção do complexo artístico e do seu significado e importância e, por outro lado, se efectua um conjunto de trabalhos de investigação que permitem à comunidade científica ter uma percepção global do conjunto, permitindo definir correctamente o que é o Côa rupestre. Para nós, isso decorre entre finais de 1991, altura em que as primeiras gravuras paleolíticas da Canada do Inferno são descobertas, e finais de 1996, quando os trabalhos de investigação mandatados pelo governo se encontram concluídos e permitirão a publicação do Relatório de 1997 (ZILHÃO 1997), e a partir do qual se toma a decisão de cancelar a barragem e salvaguardar a arte do Côa.

Em 1990 é criado o Projecto Arqueológico do Côa (PAC) para realizar o aprofundamento dos estudos arqueológicos, sob a direcção do arqueólogo Nelson Rebanda, que se manterá em funções até ao desencadear da polémica em finais de 1994. Nessa altura os trabalhos de investigação serão assumidos por dois especialistas em arte rupestre, António Martinho Baptista e Mário Varela Gomes, culminando com a publicação do Relatório de 1997.

Este período, entre finais de 1991 e finais de 1996, será extremamente profícuo em novas descobertas. A primeira ocorre no dia 20 de Novembro de 1991, quando Nelson Rebanda descobre a rocha 1 da Canada do Inferno e o seu acervo de animais paleolíticos picotados. A partir daqui, e tendo em conta que o trabalho do PAC se dedicava a todo o património e não só à arte rupestre, as descobertas de rochas historiadas sucedem-se espaçadamente. Em Abril de 1992, coincidindo com o início das obras da barragem, descobrem-se duas rochas perto da foz da ribeira de Vale de Moinhos com gravuras filiformes paleolíticas. Será no entanto em 1993 e 1994 que se faz o grosso das descobertas do PAC, começando com o abrigo pintado da Ribeirinha em Fevereiro de 1993, seguido

em Abril das primeiras rochas dos sítios do Meijapão e Canada do Amendoal, na área de influência directa das obras de construção da barragem. A partir de Setembro de 1993, com o abaixamento do nível da água da albufeira do Pocinho para a construção da ensecadeira do Côa, descobrem-se cerca de trinta rochas gravadas nos sítios contíguos da Canada do Inferno e Rêgo da Vide, em ambos os casos maioritariamente paleolíticas, mas também com algumas gravuras modernas. Por esta altura, em Novembro de 1993, face ao grande conjunto de gravuras já descobertas, irá juntar-se à equipa do PAC o desenhador Fernando Barbosa, que já tinha estado presente em 1982 nos levantamentos do Vale da Casa, e durante cerca de um ano os esforços da equipa irão concentrar-se no registo das rochas conhecidas na Canada do Inferno, interrompendo-se temporariamente a sucessão de descobertas.

Será já em Novembro de 1994, quase coincidindo com o desencadear da polémica, que se descobrem as duas primeiras rochas com gravuras paleolíticas em Vale de Figueira e uma em Vale de Videiro, seguindo-se imediatamente a descoberta das duas primeiras rochas da Ribeira de Piscos, a rocha 1 e os seus famosos cavalos com as cabeças enlaçadas, e a rocha 2, com uma densa sobreposição de figuras incisas, incluindo a bem conhecida figura antropomórfica ictifálica (BAPTISTA & GOMES 1997; 308-311).

Assim, em finais de 1994, juntando as descobertas do PAC (REBANDA 1995a; 1995b) aos sítios anteriormente conhecidos, o inventário da arte do Côa sobe para 12 sítios e 76 registos.

Já sob a direcção de António Martinho Baptista e Mário Varela Gomes, intensificam-se os registos das gravuras, inaugurando-se os levantamentos nocturnos com luz rasante, mas também a prospecção de novos sítios se intensifica, iniciando-se a prospecção em profundidade do vale, por vezes com a colaboração da população local, responsável também pela descoberta de alguns sítios e rochas, como por exemplo Vale de Cabrões.

Assim, 1995 começa com a descoberta de mais três rochas na Faia, incluindo painéis com motivos paleolíticos. Ainda no Côa, é neste ano que se descobrem os sítios da Penascosa, Quinta da Barca e Fariseu. Neste último sítio descobriram-se duas rochas, envolvendo-se a parte superior da rocha 1, com um pequeno lote de gravuras picotadas que emergia dos sedimentos depositados pela barragem do Pocinho, não se suspeitando ainda da imensa importância que este sítio e esta rocha iriam assumir a partir da escavação realizada em 1999. Ainda no Côa, inventariam-se os sítios do Vale do Forno e Broeira, com figuras paleolíticas e da Idade do Ferro incisas. Na Foz do Côa, descobre-se neste ano a primeira das muitas rochas deste sítio com gravuras antigas.

Mas é também em 1995 que a prospecção mostra uma distribuição de gravuras muito ampla e para além do Côa. Na margem esquerda do Douro, entre a embocadura do Côa e o Vale da Casa, descobrem-se três novos sítios: Vale de José Esteves, Vermelha e Vale de Cabrões, todos com predomínio de gravuras filiformes paleolíticas e proto-históricas. Na margem direita do Douro descobrem-se também dois novos sítios, Ribeira de Urros e Vale de João Esquerdo, mais uma vez com gravuras incisas paleolíticas e proto-históricas.

No ano de 1996 trabalha-se sobretudo nos levantamentos e no estudo dos sítios já conhecidos, mas descobrindo-se sempre novas rochas. Revelam-se também novos sítios, na Quinta das Tulhas na margem direita do Côa em frente à Foz do Côa, com incisões paleolíticas e da Idade do Ferro, e o sítio

dos Namorados, com vários antropomorfos picotados de cronologia pré-histórica pós-glaciar.

Desta forma, no final do ano de 1996 conheciam-se 25 sítios de arte rupestre, com um total de 190 rochas historiadas. Claramente, como os anos seguintes viriam a demonstrar, isto era apenas uma pequena percentagem do total de rochas existentes, mas esta amostragem era já bem representativa dos ciclos rupestres do Côa. Conheciam-se as características essenciais da distribuição das rochas, não tendo as descobertas posteriores alterado substancialmente o padrão que aqui se desenhava, e grande parte dos sítios mais importantes estavam já descobertos por esta altura. Era também já claro que uma principais características da arte do Côa é a sua continuidade no tempo, desde o princípio do Paleolítico Superior da região até à actualidade, podendo ser dividida em quatro grandes períodos cronológicos e culturais: Paleolítico Superior; Pré-história Recente; Idade do Ferro; Época Histórica. A arte paleolítica demonstrava ser o principal grupo artístico do Côa, estando na base da declaração do Vale do Côa como Património Mundial, mas também a arte da Idade do Ferro assumia já grande importância, afirmando-se como o segundo grande ciclo artístico do Côa.

## A consolidação dos trabalhos: 1997-2004

Em Maio de 1997, na sequência da criação do novo organismo de tutela da arqueologia portuguesa, o Instituto Português de Arqueologia (IPA), serão também criados e sediados em Vila Nova de Foz de Côa dois organismos dependentes, o PAVC e o Centro Nacional de Arte Rupestre (CNART). A investigação arqueológica da arte do Côa passará a estar a cargo do CNART, de forma intensiva e continuada. Grande parte da sua acção irá centrar-se no levantamento e estudo das superfícies historiadas, um trabalho lento e moroso, devido à grande quantidade de rochas, mas também pelos desafios e dificuldades próprias destes levantamentos, particularmente das inúmeras figuras paleolíticas em traço filiforme múltiplo.

Apesar da prioridade dada a este trabalho essencial, a prospecção continuou, e novos sítios e rochas foram sendo detectados, embora a um ritmo menor. Destaca-se a descoberta dos Moinhos de Cima em 1997, uma encosta sobre o Côa perto da foz, e da Canada da Moreira e Canada do Arrovão em 1998, localizados em linhas de água subsidiárias do Douro, a montante da foz do Côa, numa área onde ainda não se conheciam gravuras. O último dos sítios a ser identificado nesta fase é o da Ribeira das Cortes, em 2003, um afluente do Côa ao lado da Quinta da Barca, novamente com gravuras incisas paleolíticas e da Idade do Ferro.

Um acontecimento importante será a escavação arqueológica do sítio do Fariseu em 1999, sob a direcção de Thierry Aubry, aproveitando um abaixamento temporário das águas da barragem do Pocinho. Não só se encontrou a conhecida relação entre estratigrafia arqueológica e as gravuras da rocha 1, demonstrando de uma vez por todas que a atribuição de uma cronologia paleolítica a determinado tipo de gravuras estava correcta, como também se encontraram as primeiras placas com gravuras paleolíticas incisas em contexto arqueológico (AUBRY 2009a; AUBRY & SAMPAIO 2008; 2009).

A actividade de prospecção do CNART neste período vai incidir essencialmente nos sítios já conhecidos, muitos dos quais verão aumentar acentuadamente o número de rochas inventariadas. Este trabalho de prospecção incidiu maioritariamente nos sítios ao longo do Côa, e pode-se dizer que, até 2004, poucas terão sido as rochas com motivos paleolíticos gravados por picotado ou abrasão que ficaram por descobrir.

Assim, em finais de 2004 estavam inventariados 32 sítios rupestres com 335 registos, um crescimento acentuado face a 1996, sendo a grande maioria de cronologia paleolítica e/ou proto-histórica. Era uma cifra que se podia considerar verdadeiramente notável, justificando as elevadas expectativas arqueológicas que desde o princípio a arte do Côa suscitou. No entanto, hoje sabemos que até este elevado número era ainda uma percentagem relativamente pequena do total de rochas historiadas da arte do Côa, e que uma melhor percepção da realidade rupestre do Côa começará a ser apreendida com a introdução da prospecção sistemática em 2005.

## A partir de 2005: a sistematização da prospecção de arte rupestre

Desde princípios de 2005 que, tendo entrado ao serviço do CNART, me dediquei especificamente à prospecção da arte rupestre do Côa, o que se irá traduzir numa evolução considerável do conhecimento sobre a arte do Côa, em grande medida porque pela primeira vez era possível ter alguém constantemente dedicado à prospecção, inventário e registo preliminar das rochas do Côa, passando a haver assim um ritmo constante e intenso de novas descobertas e uma sistematização da informação preliminar sobre as rochas inventariadas.

Podemos dividir este período em duas fases distintas: a primeira entre inícios de 2005 e finais de 2007, e a segunda desde inícios de 2008 até hoje. Na primeira fase, por um lado, procedeu-se à actualização do inventário e relocalização dos registos conhecidos, o que por si só permitiu muitas novas descobertas nos sítios já conhecidos mas, sobretudo, este período ficou marcada pela introdução da prospecção sistemática em alguns dos sítios conhecidos, começando pela Foz do Côa (ver capítulo 3). As encostas xistosas da região, com as suas bancadas rochosas de superfícies verticais em sucessivos patamares, são particularmente propícias para este tipo de prospecção, que se revelou extremamente compensadora. Em 2005 realizou-se a prospecção total da encosta da Foz do Côa, onde eram já conhecidas 17 rochas, e em cujo topo estava prevista a construção do Museu do Côa. Como resultado, o inventário deste sítio passou nesse ano para os 189 registos, incluindo dois conjuntos de pedras com gravuras em construções agrícolas modernas (BAPTISTA & REIS 2008), subindo mais tarde essa quantidade para os 197 registos, com mais algumas novas descobertas, incluindo rochas habitualmente submersas. A Foz do Côa é o sítio com maior quantidade de superfícies historiadas no conjunto dos sítios da arte do Côa, a grande distância dos seguintes.

Até final de 2007 outros sítios foram seleccionados para se efectuar a sua prospecção sistemática, incluindo alguns dos maiores e mais importantes dos sítios da arte do Côa, como a Penascosa, Quinta da Barca, Fariseu, Vale de José Esteves, Vale do Forno ou Vale de Moinhos, ou sítios de menor

dimensão e menos conhecidos, como os Moinhos de Cima ou a Quinta das Tulhas.

Para o inventário da arte do Côa, os resultados desta prospeção sistemática foram extraordinários. Em princípios de 2008, o inventário da arte do Côa subiu para 883 registos, em 45 sítios. Face a finais de 2004, estes anos foram extraordinariamente profícuos na descoberta de novas rochas, mas também houve uma quantidade considerável de novos sítios inventariados, ao todo treze. Alguns resultaram de descobertas ocasionais, como os casos do Tudão, Fumo ou Paço, mas os restantes surgiram em prospeção orientada, nomeadamente sítios importantes como a Bulha, Garrido, Azenha ou Ribeira da Volta. No entanto, a prioridade destes três anos foi claramente dirigida para a actualização do inventário e a prospeção sistemática, e a procura de novos sítios foi relegada para segundo plano.

A partir de 2008 inaugurou-se uma nova fase na prospeção da arte do Côa. Os muitos sítios rupestres conhecido implicavam a necessidade de se investigar a sua distribuição territorial e quais os seus limites. Assim, desde 2008 até hoje, deu-se prioridade à procura de novos sítios, numa prospeção territorial de grande escala. Em simultâneo, continuou-se a fazer prospeção, sistemática ou não, nos sítios já conhecidos, para aumentar e melhorar a informação disponível. Assim, por exemplo, a realocização em 2007 das 25 rochas conhecidas no sítio de Vale de Cabrões permitiu nesse mesmo ano subir os registos para 54, mesmo sem prospeção sistemática, e nos anos seguintes o número subiu para as 92 rochas inventariadas (A rocha 61 foi descoberta em Setembro de 2010, pouco depois da abertura do Museu do Côa, e constituiu um marco importante no processo de prospeção da arte do Côa, pois foi o registo número mil!).

Nestes últimos anos, no entanto, o inventário centrou-se essencialmente no registo de novos sítios, seja nos encontrados em prospeção orientada para o efeito, seja nos que resultam da contribuição de outras fontes, procurando-se sistematizar, também aqui, todo o conhecimento existente. Desde 2005 que, em todos os anos sem excepção, foram descobertos novos sítios com arte rupestre na região, e são acrescentadas novas descobertas a sítios já conhecidos, num processo que ainda continua. Assim, e resumindo, a contabilidade, em meados de 2015, chega a 85 sítios rupestres inventariados, num total de 1223 registos. Cronologicamente, a divisão deste inventário é a seguinte: A arte do Paleolítico Superior encontra-se em 50 sítios, num total de 558 registos; A Pré-história Recente surge em 29 sítios, com 66 registos; A Idade do Ferro encontra-se em 46 sítios e 475 registos, e a Época Histórica regista-se em 52 sítios e 265 registos; Por fim, há ainda 101 registos de cronologia indeterminada, dispersos por 29 sítios. Ao longo deste tempo, foram sendo publicados alguns inventários e pontos da situação (BAPTISTA & REIS 2009; REIS 2011), culminando num recente trabalho mais alargado de descrição dos muitos sítios com arte rupestre (REIS 2012; 2013; 2014).

### 3. Métodos e critérios na prospeção e inventário da arte do Côa

Ao longo destes tempos houve uma ampla diversidade de fontes para o inventário da arte do Côa.

No entanto, foi sem dúvida a prospecção orientada para a arte rupestre que mais contribuiu para o constante aumentar dos números do inventário. Podemos sintetizar brevemente a metodologia que tem sido seguida.

## Metodologia da prospecção da arte do Côa

Resumidamente, pode-se dizer que a prospecção orientada para a arte rupestre passa por duas fases: primeiro, uma prospecção de âmbito territorial que procura determinar as características e os limites da distribuição da arte rupestre, identificando e delimitando os diferentes sítios rupestres; em seguida, uma vez identificados os sítios, a prospecção procura intensificar o conhecimento em cada sítio, tendo como objectivo último a inventariação de todos os vestígios rupestres existentes.

Para definir um novo sítio de arte rupestre basta descobrir um só registo historiado, seja com gravuras ou pinturas, independentemente de se tratar de uma rocha, placa, estela, pedra solta, etc.. A definição dos limites desse novo sítio procura seguir critérios lógicos e topográficos, tendo em conta a realidade no terreno e o confronto com outros sítios na vizinhança. Na região da arte do Côa, grande parte dos sítios conhecidos encontra-se sobre os rios principais, o Côa e o Douro, sendo geralmente definidos ou como encostas sobre os rios ou como os vales de linhas de água afluentes desses rios. Não existe propriamente um método estabelecido para procurar novos sítios, é uma busca que depende grandemente do conhecimento do terreno, e o ponto de partida é simples: onde há afloramentos rochosos pode haver arte rupestre, e é preciso ir ver no próprio local se esta ocorre ou não.

Embora longe de terminada, esta prospecção territorial encontra-se avançada e há algumas áreas onde está completa, ou quase, nomeadamente no troço final do Côa, entre a foz e a Penascosa/Quinta da Barca, ou quase toda a margem esquerda do Douro. Temos procurado delimitar cartograficamente as áreas prospectadas, recorrendo a GPS, e definindo dois tipos de prospecção distintos. Em primeiro lugar, aquilo que designamos por “prospecção geral”, e que consiste numa vistoria com alguma profundidade de uma determinada área, permitindo caracterizar a zona e saber, com alguma margem de erro, se nesta poderá ou não existir arte rupestre. Caso se detectem gravuras ou pinturas, estas são inventariadas e a zona fica marcada como merecendo uma nova e mais aprofundada prospecção. Se nada for descoberto, a área fica cartograficamente assinalada como sendo vazia, o que é igualmente importante, não só para o planeamento futuro de trabalhos de prospecção como também para o estudo da distribuição territorial da arte rupestre.

Uma vez definido um sítio rupestre, pode-se então planear a prospecção sistemática, que tem por objectivo a descoberta de “todos” os vestígios rupestres existentes dentro da área que é prospectada. A única forma de atingir este objectivo é observar, uma a uma, todas as superfícies rochosas existentes dentro da área de terreno seleccionada. A prospecção sistemática precisa assim de ser metódica e cuidadosa, implicando uma batida do terreno ordenada e sequencial, sempre com cuidado para não deixar para trás determinadas superfícies. Os limites da área prospectada são assinalados com GPS para serem cartografados. Podem ser inconspícuos no terreno, se necessário, mas é preferível

corresponderem a realidades demarcáveis, como caminhos, muros, linhas de água, estruturas ou mesmo rochas inventariadas. Nesta região, de geologia sobretudo xistosa, a prospeção sistemática normalmente é feita de cima para baixo nas encostas, em linhas tendencialmente paralelas, ao longo das curvas de nível naturais, ou seguindo plataformas naturais ou artificiais. As áreas prospectadas terão uma dimensão dependente da dificuldade que o terreno oferece e da quantidade de vestígios que se encontram. Nesta região, em que os dois factores (elevada dificuldade e muitos vestígios) frequentemente se associam, as áreas de prospeção sistemática são geralmente pequenas.

Como exemplo paradigmático, o sítio da Foz do Côa, o primeiro onde aplicamos este método de prospeção, em 2005 (APTISTA & REIS 2008). É uma encosta de formato irregular, com comprimento máximo de 850 metros por uma largura aproximada de 350 metros, fazendo uma área total de 367600 m<sup>2</sup>. A prospeção sistemática de toda esta zona, feita ao longo de oito meses, exigiu a sua divisão final em 75 áreas mais pequenas, a maior das quais com 26300 m<sup>2</sup>, a menor com apenas 130 m<sup>2</sup>.

### **Os “outros registos”: achados incomuns na arte do Côa**

Ao longo deste texto temos feito a distinção entre as expressões “registos” e “rochas”. Na verdade, há elementos inventariados dentro do conjunto da arte do Côa que, podendo ser englobados no universo da arte rupestre, não são estritamente “rochas”, ou seja, afloramentos rochosos *in situ* historiados, com gravuras ou pinturas. Estes outros registos são elementos pétreos soltos que, no caso do Côa, apresentam predominantemente gravuras. Quantitativamente, são pouco relevantes no universo do inventário da arte do Côa: 22 casos, num total de 1223 registos. No entanto, alguns são de grande interesse e importância, e acrescem à imensa variedade que caracteriza a arte do Côa. Refira-se ainda que esta escassa quantidade tem a ver com a maneira como os integramos no inventário da arte do Côa, uma vez que os vestígios materiais destes “outros registos” são, na verdade, bastante abundantes. Por exemplo, há cerca de 80 pedras diferentes com gravuras no sítio da Rua dos Namorados; há mais de 70 placas de arte móvel no Fariseu; o casebre com pedras gravadas da Foz do Côa tem pelo menos 35 destas pedras. No entanto, estes conjuntos de pedras gravadas são, em cada caso, considerados como um só registo para efeitos de inventário.

Estes “outros registos” dividem-se por todo o espectro cronológico da arte do Côa, e são de tipos variados. Existem placas com arte móvel paleolítica e da Idade do Ferro, salientando-se particularmente aqui o conjunto das placas do Fariseu (AUBRY 2009b; BAPTISTA 2008, 65-71, 104; GARCÍA DIEZ 2009; GARCÍA DIEZ & AUBRY 2002), ou as gravuras da Idade do Ferro nas placas do Paço e na pedra do Olival dos Telhões (COSME 2008). Outro tipo consiste em pedras soltas com gravuras antigas, fragmentadas do seu afloramento original, por vezes incorporadas em estruturas modernas. Destas, salientam-se pedras com gravuras paleolíticas nos sítios da Penascosa, Quinta da Barca, Tudão e Foz do Côa, outras com gravuras da Pré-história Recente nos sítios da Vinagreira e Casa Velha, e outras ainda no Azinhate e Vale da Casa, com gravuras de Época Histórica.

Também em tempos recentes, sucede por vezes que se fazem gravuras directamente em estruturas já construídas, como em dois casebres agrícolas na Foz do Côa e no Paço ou, num caso muito original, nas paredes internas da casa da Quinta da Barca, aqui com muitas e excelentes gravuras, cuja cronologia andarà no século XIX ou princípio do século XX. Na aldeia de Castelo Melhor encontra-se a Rua dos Namorados, ladeada por um muro com mais de 80 pedras gravadas com motivos picotados modernos, de possível cronologia entre os séculos XV e XVII (COIXÃO 1996, 215; GARCÍA DIEZ & LUÍS 2003, 213-216). De significado desconhecido, é provável que este belo conjunto integrasse originalmente uma outra estrutura.

Por fim, um tipo bastante diferente de registo de arte rupestre corresponde a um grande monólito de granito com gravuras datáveis da Pré-história Recente, que integra o grupo das estátuas-menires da Idade do Bronze do Norte e Centro da Península Ibérica, descoberto no sítio do Cruzeiro Velho (ALMAGRO 1966, 108-109), tendo-se recentemente descoberto mais dois pequenos exemplares no local, um dos quais também gravado.

## 4. Delimitação e características geomorfológicas da região da arte do Côa

A confusa profusão inicial de descobertas, a partir de 1995, indicava claramente que a área de distribuição da arte do Côa seria ampla, abrangendo terrenos ao longo dos rio Côa e Douro. No entanto, durante bastante tempo não foi claro quais seriam os seus limites, embora fosse evidente que estes tinham que existir. Hoje estamos mais perto de os podermos aclarar, caracterizando assim globalmente a área de distribuição da arte do Côa.

A principal área de distribuição da arte do Côa está no troço final do rio Côa e das áreas adjacentes do rio Douro. A zona mais conhecida corresponde aos últimos 11/12 quilómetros do Côa, entre a sua foz e um denso conjunto de vários sítios com arte rupestre: Penascosa, Quinta da Barca, Foz da Ribeirinha, Ribeira das Cortes e Ribeira da Volta. Já no Douro, os sítios continuam para jusante da foz do Côa, numa extensão de sete quilómetros até ao sítio do Vale Escuro, já perto da aldeia e da barragem do Pocinho, e para montante da foz do Côa até ao sítio de Vale d'Arcos, numa extensão de aproximadamente 10 quilómetros.

Esta corresponde à distribuição fulcral da arte do Côa, com a característica mistura de gravuras paleolíticas, proto-históricas e modernas em afloramentos de xisto, e alguns motivos da Pré-história Recente de permeio. No entanto, há mais sítios inventariados no rio Côa, que se distribuem para Sul do grupo acima referido ao longo de mais de 20 quilómetros. Estes sítios têm características um pouco diferentes, surgindo espaçadamente ao longo de terrenos predominantemente graníticos, e consistindo maioritariamente em pinturas da Pré-história Recente, com apenas algumas gravuras paleolíticas e modernas. Os últimos sítios conhecidos são o Alto da Cotovia e Quinta da Moreirola, a cerca de 34 quilómetros de distância da foz do Côa, situados frente a frente num troço do Côa onde reaparece o

xisto, tendo ambos algumas gravuras incisas paleolíticas.

Ou seja, a arte do Côa distribui-se segundo dois eixos fundamentais. O primeiro é o rio Côa, numa extensão total de aproximadamente 34 quilómetros, dos quais os últimos 11/12 quilómetros são os mais importantes, com os sítios a sucederem-se densamente uns aos outros e apresentando enorme quantidade de rochas gravadas, por contraste com os sítios mais espaçados e com menor quantidade de rochas que se encontram nos terrenos para Sul. O segundo eixo é o Douro, adjacente à embocadura do Côa, numa extensão aproximada de 17 quilómetros entre o Pocinho e o sítio de Vale d'Arcos, com os sítios a apresentarem características similares ao último troço do Côa. Os términos destes eixos parecem assinalar o início de zonas de transição para outras realidades geomorfológicas.

## A geomorfologia da região da arte do Côa.

O vale do Côa assinala uma fronteira natural, que deverá ter tido importância no passado, podendo ser um dos factores que levaram à realização de tanta arte rupestre numa área circunscrita e ao longo de tanto tempo (REIS 2014, 34-35). Correndo de Sul para Norte, o rio marca o término da Meseta Ibérica, que se desenvolve a Leste para Espanha, dando lugar em Portugal aos mais elevados planaltos e montanhas que marcam o relevo do Norte e Centro de Portugal. Assim, toda a arte do Côa se encontra no remate final da grande Meseta Ibérica. Como vimos, a área de distribuição da arte do Côa pode-se dividir em duas grandes áreas, com a zona fulcral correspondendo aos últimos 12 quilómetros do Côa e aos 17 quilómetros adjacentes do Douro, e uma zona secundária (mas cientificamente não menos importante) correspondendo ao troço seguinte do rio Côa para Sul, numa extensão de 22 quilómetros. As duas zonas têm características geomorfológicas diferentes.

A zona fulcral é uma área planáltica correspondente à meseta original, profusamente sulcada por inúmeras linhas de água profundas e escarpadas, correspondentes aos dois rios principais, o Douro e o Côa, e às pequenas ribeiras que lhes afluem. A cota do planalto original ronda os 400 metros acima do nível do mar, e o rio Douro nesta zona tem uma cota de 110 metros acima do nível do mar, fazendo com que os vales tenham uma profundidade típica entre os 200 e 300 metros. Toda esta zona é de geologia quase exclusivamente xistosa, e é precisamente nas encostas destes vales que, por efeitos erosivos, surgem os afloramentos de xisto de superfícies verticais onde se encontra a esmagadora maioria das gravuras da arte do Côa. Dos 1223 registos da arte do Côa, 1174 encontram-se nesta área fulcral.

A excepção à predominância do xisto surge em dois maciços quartzíticos a cotas mais elevadas, elementos residuais e sobreviventes dos profundos processos erosivos que marcam a região desde há muitos milhões de anos. Um dos maciços surge no centro da área fulcral, o Monte de São Gabriel, dominando a paisagem entre o Côa e o Douro, e elevando-se 250 metros acima do planalto. O outro surge ao longo da margem direita do Douro, elevando-se a quase 800 metros acima do nível do mar. Mas, embora imponentes e geologicamente importantes, estes maciços quartzíticos apresentam muito pouca arte rupestre, apenas duas rochas com pinturas da Pré-história Recente e uma terceira com

covinhas.

A área secundária tem uma morfologia similar à anterior, correspondendo a um planalto sulcado por linhas de água profundas, mas tem algumas diferenças importantes. As áreas planálticas são maiores e mais contínuas, e a uma cota superior, atingindo os 500 metros acima do nível do mar, e a diversidade geológica é maior. Grande parte da área é granítica, interrompida por uma nova área de quartzitos, a Serra da Marofa (que atinge os 900 metros acima do nível do mar), que por sua vez é sucedida por outra área xistosa. Nesta área granítica, o rio Côa forma um canhão estreito e profundo, e grande parte da arte rupestre desta área secundária surge aqui, sobretudo pinturas da Pré-história Recente, mas também as importantes gravuras paleolíticas da Faia, com os sulcos gravados pintados por cima. Na Serra da Marofa surgem mais pinturas da Pré-história Recente, e na zona xistosa reaparecem algumas gravuras paleolíticas que, como vimos, marcam o final da do complexo rupestre do Côa. No entanto, as rochas gravadas ou pintadas surgem aqui em pouco número e muito mais espaçadas face à zona fulcral, havendo apenas 49 registos inventariados no total dos 1223 registos da arte do Côa.

## 5. Conclusão

Embora haja alguns antecedentes ao longo do século XX, remontando aos anos 30, no reconhecimento da existência de gravuras no troço terminal do rio Côa e na área adjacente do rio Douro, a plena revelação da existência deste complexo rupestre ocorre apenas no final do ano de 1994, levando à intensa polémica, nacional e internacional, ao longo do ano de 1995, com a troca cruzada de argumentos entre os defensores da construção da barragem do Côa e os defensores da preservação das recentemente descobertas gravuras do Côa. Como é sabido, essa polémica culminou na decisão de abandonar a construção da barragem e de preservar a arte do Côa, levando à constituição do Parque Arqueológico do Vale do Côa e, anos mais tarde, à construção do Museu do Côa. Parque e Museu têm sido os meios através dos quais se tem efectuado a divulgação ao público da arte do Côa e se tem prosseguido a investigação da arte rupestre e dos seus contextos arqueológicos. Esta investigação tem vindo a ser divulgada em numerosos artigos e livros, muitos dos quais livremente disponíveis na página web do Museu e Parque Arqueológico ([www.arte-coa.pt](http://www.arte-coa.pt)).

No tocante à arte rupestre, e entre muitos outros aspectos da sua investigação e características, o factor “quantidade” desde logo se assumiu como sendo importante. A procura de novas gravuras e de novos sítios esteve sempre presente na investigação arqueológica do Parque Arqueológico do Vale do Côa, desde o início e continuando ainda hoje. Essa investigação, que teve a participação de numerosas entidades e pessoas, incluindo alguns elementos da população local, permitiu que o número de rochas e registos inventariados tenha passado de poucas dezenas no final de 1994, no momento da revelação da arte do Côa, até às mais de 1200 que se registam hoje, distribuídos por mais de 80 sítios diferentes.

A esmagadora maioria destes registos corresponde a “rochas”, ou seja, afloramentos in situ com

gravuras e/ou pinturas. Por sua vez, a gravura domina enormemente face à pintura, pois há menos de uma vintena de rochas com motivos pintados, maioritariamente da Pré-história Recente, havendo uma única rocha, no sítio da Faia, em que gravura e pintura paleolítica se juntam nos mesmos motivos. Existem apenas 22 registos inventariados que não correspondem a “rochas” mas sim a outro tipo de pedras com gravuras (e um único caso de um seixo pintado no sítio paleolítico do Fariseu), sejam pedras soltas e partidas dos afloramentos originais, placas gravadas, estelas, etc..

Embora a prospecção e buscas de novas rochas e gravuras não esteja terminada, o vasto conhecimento adquirido permite conhecer e delimitar com grande correcção a área de distribuição da arte do Côa. Esta pode ser dividida em duas grandes áreas: fulcral e secundária. A primeira corresponde aproximadamente aos últimos 11/12 quilómetros do rio Côa e aos 17 quilómetros adjacentes do rio Douro, para um e outro lado da embocadura do Côa. É aqui que se encontra a imensa maioria das rochas gravadas e restantes registos da arte do Côa, cerca de 96%, numa área de geologia quase exclusivamente xistosa, correspondente a um antigo planalto densamente sulcado por uma miríade de linhas de água afluentes dos dois principais rios. Os restantes registos, em escasso número mas científica e patrimonialmente relevantes, surgem na área de distribuição secundária, correspondente aos subsequentes 22 quilómetros do rio Côa para Sul da área fulcral.

Nos próximos anos, para além de uma continuação dos trabalhos de estudo detalhado das muitas rochas e gravuras inventariadas na região, deverá também assistir à continuação de novas descobertas, seja em novos sítios seja em sítios já conhecidos, permitindo um conhecimento cada vez mais aperfeiçoado das características e dos números da arte do Côa, que serão divulgadas e publicadas para conhecimento do grande público e da classe científica, à medida do ritmo da investigação e das possibilidades da sua publicação.

## Bibliografía

ALCALDE DEL RIO, H.; BREUIL, H.; SIERRA, L. (1911) – *Les cavernes de la région cantabrique (Espagne)*. OCLC 1309769. Monaco: Imprimerie Vve A. Chêne.

ALCOLEA GONZÁLEZ, J. J.; BALBÍN BEHRMANN, R. (2006) – *Arte paleolítico al aire libre. El yacimiento rupestre de Siega Verde*. ISBN 8497180062 9788497180061. Salamanca: Junta de Castilla y León.

ALMAGRO, M. (1966) – *Las Estelas decoradas del Suroeste Peninsular*. OCLC 638994781. Madri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Universidad de Madrid.

ALMANSA SÁNCHEZ, J. (2012) – To be or not to be? Public archaeology as a tool of public opinion and the dilemma of intellectuality. *Archaeological Dialogues*. ISSN 1380-2038. Vol. 20, nº 1, p. 5-11.

ÁLVAREZ-SANCHIS, J. A. (2004) – Etnias y fronteras: Bases arqueológica para el estudio de los pueblos prerromanos en el occidente de Iberia. In LOPES, M. C.; VILAÇA, R. (eds.) - *O Passado em cena: Narrativas e fragmentos*. ISBN 972-9004-19-6. Coimbra: CAUCP, pp. 299–327.

ALVES, F. M. (1938) – *Memórias Arqueológico-Históricas do Distrito de Bragança*. ISBN 972-98569-1-5. Porto.

ANDRADE, J. S. (1940) – *Vila Nova de Fozcoa*. In Anuário da Região Duriense. Régua: Imprensa do Douro, pp. 498-505

ARAÚJO IGREJA, M. (2009) – Estudo traceológico das indústrias líticas de Olga Grande 4 e Cardina I: função, modo de funcionamento dos artefactos e outras inferências comportamentais. In AUBRY, T. (ed.) - *200 séculos da história do Vale do Côa: incursões na vida quotidiana dos caçadores-artistas do Paleolítico*. ISBN 9789898052148 9898052147. Lisboa: IGESPAR, pp. 235-247.

AUBRY, T. (ed.) (2009) – *200 séculos da história do Vale do Côa: incursões na vida quotidiana dos caçadores-artistas do Paleolítico*. ISBN 9789898052148 9898052147. Lisboa: IGESPAR.

AUBRY, T. – (2009b) – Actualisation des données sur les vestiges d'art paléolithique sur support mobilier de la Vallée du Côa. In AUBRY, T. (ed.) - *200 séculos da história do Vale do Côa: incursões na vida quotidiana dos caçadores-artistas do Paleolítico*. ISBN 9789898052148 9898052147. Lisboa: IGESPAR, pp. 382-395.

AUBRY, T.; DIMUCCIO, L. A.; BERGADA, M.; SAMPAIO, J.D.; SELLAMI, F. (2010) – Palaeolithic engravings and sedimentary environments in the Côa River Valley (Portugal): Implications for the detection, interpretation and dating of open-air rock art.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ISSN 03054403. Vol. 37, nº 12, pp. 3306-3319.

AUBRY, T.; LUÍS, L. (2012) – Umwelt und Gesellschaft der paläolithischen Freilandkunst im Côa-Tal (Portugal). In DALLY, O.; MORAW, S.; ZIEMSEN, H. (eds.) - *Bild – Raum – Handlung: Perspektiven der Archäologie*, pp. 69-103.

AUBRY, T.; MANGADO LLACH, X. (2006) – The Côa Valley (Portugal). Lithic raw material characterisa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upper palaeolithic settlements patterns. In BRESSY, C.; BURKE, A.; CHALARD, P.; MARTIN, H. (eds.) - *Notions de territoire et de mobilité. Exemples de l'Europe et des premières nations en Amérique du Nord avant le contact européen*. ISBN 2930495006 9782930495002. Liège: Université de Liège, pp. 41-49.

AUBRY, T.; LUÍS, L.; DIMUCCIO, L. A. (2012) – Nature vs. Culture: present-day spatial distribution and preservation of open-air rock art in the Côa and Douro River Valleys (Portugal).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ISSN 03054403. Vol. 39, nº 4, pp. 848–866.

AUBRY, T.; LUÍS, L.; MANGADO LLACH, J.; MATIAS, H. (2012) – We will be known by the tracks we leave behind: exotic lithic raw materials, mobility and social networking among the Côa Valley foragers (Portugal).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ISSN 0278-4165. Vol. 31, nº 4, pp. 528-550.

AUBRY, T.; SAMPAIO, J.D. (2008). Fariseu: new chronological evidence for open-air Palaeolithic art in the Côa valley (Portugal). *Antiquity*. ISSN 0003

598X. Vol. 82, nº 316.

AUBRY, T.; SAMPAIO, J. D. (2009) – Chronologie et contexte archéologique des gravures paléolithiques de plein air de la Vallée du Côa (Portugal). In BALBÍN BEHRMANN, R. (ed.) – *Arte prehistórico al aire libre en el Sur de Europa*. ISBN 9788497185929. Junta de Castilla y León/Consejería de Cultura y Turismo, pp. 211-223

AUBRY, T.; SAMPAIO, J. D. (2012) – Novos dados para a abordagem técnica da arte rupestre e móvel do Vale do Côa. In SANCHES, M. J. (ed.) - *Artes Rupestres da Pré-História e da Proto-História: Paradigmas e Metodologias de Registo*. ISBN 978-989-8052-30-8. Lisboa: DGPC, pp. 185–206.

AUBRY, T., SAMPAIO, J.D., LUÍS, L. (2011) – Approche expérimentale appliquée à l'étude des vestiges du Paléolithique supérieur de la Vallée du Côa. In Morgado, A.; Baena Preysler, J.; García Gonzalez, D. (eds.) - *La investigación experimental aplicada a la arqueología*. ISBN 9788433853370 8433853376. Granada: Universidad de Granada, pp. 87-96.

AUBRY, T, SANTOS, T, A, LUÍS, L. (2014). Stratigraphies du panneau 1 de Fariseu : analyse structurale d'un système graphique paléolithique à l'air libre de la vallée du Côa (Portugal). In Paillet, P. (ed.) - *Les arts de la Préhistoire: micro-analyses, mises en contextes et conservation*. ISBN 9782911233128 2911233123. Paleo, numéro spécial, pp. 259-270.

BAKKEVIG, S. (2004) – Rock art preservation: Improved and ecology-based methods can give weathered sites prolonged life. *Norwegian Archaeological Review*. ISSN 0029-3652. Vol. 37, nº 2, pp. 65-81.

BALBÍN BEHRMANN, R. de (2014) – Los caminos más antiguos de la imagen: el Sella. In BLAS CORTINA, M. Á. de (ed.) - *Expresión simbólica y territorial: los cursos fluviales y el arte paleolítico en Asturias*. ISBN 9788494266072 8494266071. Oviedo: Real Instituto de Estudios Asturianos, pp. 65-91.

BAPTISTA, A. M. (1983) – O complexo de gravuras rupestres do Vale da Casa (Vila Nova de Foz Côa). *Arqueologia*. ISSN 0870-2306. Vol. 8, pp. 57–69.

BAPTISTA, A.M. (1999) – *No tempo sem tempo: A arte dos caçadores paleolíticos do Vale do Côa: Com uma perspectiva dos ciclos rupestres pós-glaciares*. ISBN 9729812101. Vila Nova de Foz Côa: PAVC.

BAPTISTA, A. M. (2008) – Aspectos da arte magdalenense e tardi-glaciar no Vale do Côa. In SANTOS, A. T.; LUÍS, L. (eds.) - *Do Paleolítico à Contemporaneidade. Estudos sobre a História da Ocupação humana em Trás-os-Montes, Alto Douro e Beira Interior*. Porto: ACDR Freixo de Numão, pp. 14-31.

BAPTISTA, A.M. (2009) – *O Paradigma Perdido. O Vale do Côa e a Arte Paleolítica de Ar Livre em Portugal/Paradigm Lost. Côa Valley and the open-air palaeolithic art in Portugal*. ISBN 9789723609974 9723609975. Porto: Edições Afrontamento/PAVC.

BAPTISTA, A. M.; FERNANDES, A. P. B. (2007) – Rock art and the Coa Valley Archaeological Park: A case study in the preservation of Portugal's prehistoric parietal heritage. In PETTIT, P.; BAHN, P.; RIPOLL, S. (eds) - *Palaeolithic Cave Art at Creswell Crags in European Context*. ISBN 978-0-19-929917-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63-79.

BAPTISTA, A. M.; GOMES, M. V. (1997) – Arte rupestre. In ZILHÃO, J. (ed.) – *Arte rupestre e Pré-história do Vale do Côa: trabalhos de 1995-1996*. ISBN 9728087373 9789728087371. Lisboa: Ministério da Cultura, pp. 210-406.

BAPTISTA, A. M.; REIS, M. (2008) – Prospecção da Arte rupestre na Foz do Côa. Da iconografia do Paleolítico superior à do nosso tempo, com passagem pela IIª Idade do Ferro. In SANTOS, A. T.; SAMPAIO, J. D. (eds.) - *Pré-história — gestos intemporais*. ISBN 978-972-99799-3-4. Vila Nova de Foz Côa: ACDR Freixo de Numão, pp. 62-95.

BAPTISTA, A. M.; REIS, M. (2009) – Prospecção da Arte Rupestre no Vale do Côa e Alto Douro Português: ponto da situação em Julho de 2006. In BALBÍN BEHRMANN, R. (ed.) – *Arte prehistórico al aire libre en el Sur de Europa*. ISBN 9788497185929. Junta de Castilla y León/Consejería de Cultura y Turismo, pp. 145-192.

BAPTISTA, A. M.; REIS, M. (2011) – A rocha gravada de Redor do Porco. Um novo sítio com arte paleolítica de ar livre no rio Águeda (Escalhão,

Figueira de Castelo Rodrigo). *Côavisão*. ISBN 9789728763237. Vol. 13, pp. 15-20.

BAPTISTA, A. M.; SANTOS, A. T. (2013) – *A arte rupestre do Guadiana português na área de influência do Alqueva*. EDIA; DRCALEN (Memórias d’Odiana; 2a série).

BAPTISTA, A. M.; SANTOS, A. T.; CORREIA, D. (2006) – Da ambiguidade das margens na grande arte de ar livre no Vale do Côa. Reflexões em torno da organização espacial do santuário gravetto-solutrense na estação da Penascosa/Quinta da Barca. *Côavisão*. ISBN 9789728763237. Vol. 8, pp. 156-184.

BAPTISTA, A. M.; SANTOS, A. T.; CORREIA, D. (2008) – O santuário arcaico do Vale do Côa: novas pistas para a compreensão da estruturação do bestiário gravettense e/ou gravetto-solutrense. In BALBÍN BEHRMANN, R. (ed.) – *Arte prehistórico al aire libre en el Sur de Europa*. ISBN 9788497185929. Junta de Castilla y León/Consejería de Cultura y Turismo, pp. 89-144.

BREUIL, H.; OBERMAIER, H.; ALCALDE DEL RÍO, H. (1913) – *La Pasiega a Puente-Viesgo (Santander) (Espagne)*. OCLC 49878233. Monaco: Imprimerie Vve A. Chêne.

BRUNET, J. (1995) – Theories and practice of the conservation of our heritage of rock art. Concrete examples of interventions in natural climatic environment. In THORN, A.; BRUNET, J.; Ward, G.; Ward, L. A. (eds.) – *Preservation of rock art*. ISBN 0958680205 9780958680202 Melbourne: Australian Rock Art Research Association, pp. 1-11.

BUENO RAMÍREZ, P.; BALBÍN BEHRMANN, R.; ALCOLEA GONZÁLEZ, J. J. (2007) – Style V dans le bassin du Douro. Tradition et changement dans les graphies des chasseurs du Paléolithique Supérieur européen. *L’Anthropologie*. ISSN 0003-5521. Vol. 111, nº 4, pp. 549-589.

CANTALEJO DUARTE, P.; ESPEJO HERRERÍAS, M. D. M. (1997) – Arte rupestre paleolítico del Sur peninsular. Consideraciones sobre los ciclos artísticos de los grandes santuarios y sus territorios de influencia. *Revista Atlántica-Mediterránea de Prehistoria y Arqueología Social*. ISSN 1138-9435. Vol. 1, pp. 77-96.

COIXÃO, A. N. S (1996) – *Carta Arqueológica do Concelho de Vila Nova de Foz Côa*. ISBN 972-95164-7-2. Vila Nova de Foz Côa: Câmara Municipal de Vila Nova de Foz Côa.

COLLADO GIRALDO, H. (2007) – *Arte Rupestre en la Cuenca del Guadiana: El Conjunto de Grabados del Molino de Manzániz (Alconchel-Cheles)*. Beja: EDIA.

COMBIER, J. (1984) – Grotte de La Tête-du-Lion. In L’art des cavernes. *Atlas des grottes ornées paléolithiques françaises*. ISBN 2110808179 9782110808172. 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s/Imprimerie Nationale, pp. 595-599.

CONKEY, M. W. (1980) – The identification of prehistoric hunter-gatherer aggregation sites: the case of Altamira. *Current Anthropology*. ISSN 0011-3204. Vol. 21, nº 5, pp. 609-630.

COSME, S. R. (2008) – Proto-história e Romanização entre o Côa e o Águeda. In LUÍS, L. (ed.) - *Proto-história e Romanização: Guerreiros e colonizadores*. ISBN 978-972-99799-3-4. Porto: ACDR de Freixo de Numão, pp. 72-80.

DEACON, J. (2006) – Rock art conservation and tourism.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ISSN 1072-5369. Vol. 13, nº 4, pp. 379-99.

DEVLET, E.; DEVLET, M. (2002) – Heritage protection and rock art regions in Russia. In: CHALMIN, E. (ed.) – *L’art avant l’histoire. La conservation de l’art préhistorique*. ISBN 2905430133 9782905430137. Paris: SFIIC, pp. 87-94.

DOEHNE, E.; PRICE, C. (2010) – *Stone conservation. An overview of current research. Second edition*. ISBN 9781606060469 1606060465. Los Angeles: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DRAGLAND, A. [Online 2013] – Big Data - for better or worse. *SINTEF*. [10 July 2013]. Available online:<URL:<http://www.sintef.no/home/Press-Room/Research-News/Big-Data--for-better-or-worse/>>.

DUGGAN, M.; ELLISON, N.; LAMPE, C.; LENHART, A.; MADDEN, M. [Online 2015] – Social Media Update 2014. *Pew Research Center*. [9 April 2015]. Available online: <URL:<http://www.pewinternet.org/2015/01/09/social-media-update-2014/>>.

FERNANDES, A. P. B. (2004) – Visitor management and the preservation of rock art. Two case studies of open air rock art sites in Northeastern Portugal: Côa Valley and Mazouco.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ISSN 1350-5033. Vol. 6, nº 2, p. 95-111.

FERNANDES, A. P. B. (2007) – The Conservation Programme of the Côa Valley Archaeological Park: Philosophy, objectives and act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ISSN 1350-5033. Vol. 9, nº 2, pp. 71-96.

FERNANDES, A. P. B. (2008) – Aesthetics, ethics, and rock art conservation: How far can we go? The case of recent conservation tests carried out in un-engraved outcrops in the Côa Valley, Portugal. In HEYD, T.; CLEGG, J. (eds.) – *Aesthetics and Rock Art III Symposium*. ISBN 9781407303048 140730304X. Oxford: Archaeopress, pp. 85-92.

FERNANDES, A. P. B. [Online 2015] – Vídeos. *Do Indecifrável*. [22 April 2015]. Available online: <URL: <https://batarda.wordpress.com/videos/>>.

FERNANDES, A. P. B., MENDES, M., AUBRY, T., SAMPAIO, J., JARDIM, R., CORREIA, D., JUNQUEIRO, A., BAZARÉU, D., DIAS, F. and PINTO, P. (2008) –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the Côa Valley Archaeological Park and the local community: An account of the first decad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ISSN 1350-5033. Vol. 10, nº 4, pp. 330-343.

FIGUEIREDO, S. C. S. de; NOBRE, L.; GASPAR, R.; CARRONDO, J.; CRISTO ROPERO, A.; FERREIRA, J.; SILVA, M. J. da; MOLINA, F. J. (2014) – Foz do Medal terrace — an open-air settlement with paleolithic portable art. *International Newsletter on Rock Art*. ISSN 1022-3282. Vol. 68, pp. 12-19.

GABRIEL, S, BEAREZ, P. (2009) – Caçadores-pescadores do Vale do Côa: os restos de fauna do sítio do Fariseu. In AUBRY, T. (ed.) - *200 séculos da história do Vale do Côa: incursões na vida quotidiana do caçadores-artistas do Paleolítico*. ISBN 9789898052148 9898052147. Lisboa: IGESPAR, pp. 331-339.

GARCÍA DIEZ, M. (2009) – Grafismo mueble: las estaciones de Fariseu, Quinta da Barca Sul y Cardina I. In: AUBRY, T. (ed.) - *200 séculos da história do Vale do Côa: incursões na vida quotidiana do caçadores-artistas do Paleolítico*. ISBN 9789898052148 9898052147. Lisboa: IGESPAR, pp. 361-395

GARCÍA DIEZ, M.; AUBRY, T. (2002) – Grafismo mueble en el Valle de Côa (Vila Nova de Foz Côa, Portugal) - la estación arqueológica de Fariseu. *Zephyrus*. ISSN 0514-7336. Vol. 55, pp. 157-182

GARCÍA DIEZ, M.; LUÍS, L. (2003) – José Alcino Tomé e o último ciclo artístico rupestre do Vale do Côa: um caso de etnoarqueologia. *Estudos Pré-Históricos*. ISBN 972-95952-9-1. Vol. X-XI, pp. 199-223

GERASIMOV, M.M. (1958). – Paleolitičeskaia stoinka Mal'ta (raskopki 1956-57 gg.). *Sovetskaja etnografija*. ISSN 00215023. Vol. 3, pp. 28-52.

GOMES, M. V. (2013) – O abecedário rupestre, proto-histórico, do Vale da Casa (Vila Nova de Foz Côa). *Revista da Faculdade de Letras - Ciências e Técnicas do Património*. ISSN 165-4936. Vol. 12, pp. 69–85.

GOOGLE ANALYTICS [Online 2015] – Google Analytics. *Google Analytics*. [28 April 2015]. Available online:<URL:<https://www.google.com/analytics/>>.

GUY, E. (2000) – Le style des figurations paléolithiques piquetées de la vallée du Côa (Portugal): premier essai de caractérisation. *L'Anthropologie*. ISSN 0003-5521. Vol. 104, nº 3, pp. 415-426.

HARMAND, S.; LEWIS, J. E.; FEIBEL, C. S.; LEPRE, C. J.; PRAT, S.; LENOBLE, A.; BOËS, X.; QUINN, R. L.; BRENET, M. (2015). 3.3-million-year-old stone tools from Lomekwi 3, West Turkana, Kenya. *Nature*. ISSN 0028-0836. Vol. 521, nº 7552, pp. 310–315.

HERNÁNDEZ-PACHECO, E. (1919) – *La caverna de la Peña de Candamo*. OCLC 13401298. Madrid: Museo Nacional de Ciencias Naturales.

INGOLD, T. (2011) – From trust to domination: an alternative history of human-animal relations. In INGOLD, T. -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Essays i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ISBN 9780415617475 0415617472. London/New York: Routledge, pp. 61-76.

JORGE, S. O.; ALMEIDA, C. A. F. de; JORGE, V. O.; SANCHES, M. de J.; SOEIRO, M. T. (1981) – Gravuras rupestres de Mazouco (Freixo de Espada à Cinta). *Arqueologia*. ISSN 0870-2306. Vol. 3, pp. 3-12.

JUNCO, R., HEIBERGER, G.; LOKEN, E. (2011). The effect of Twitter on college student engagement and grades.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ISSN 1365-2729. Vol. 27, nº 2, pp. 119-132.

KLÍMA, B. (1963) – *Dolní Věstonice: Výzkum tábořiště lovců mamutů v letech 1947-1952*. OCLC 3420098. Prague: Nakladatelství Československé Akademie Věd.

LEMOIS, F. S. (1989) – Dossier Côa I: O relatório de impacte patrimonial. *Forum*. ISSN 0871-0422. Vol. 15/16, pp. 141-156.

LENOIR, M.; ROUSSOT, A.; DELLUC, B.; DELLUC, G. (2006) – *La grotte de Pair-non-Pair à Prignac-et-Marcamps (Gironde)*. ISBN 9782908175080 2908175088. Bordeaux: Société Archéologique de Bordeaux.

LORBLANCHET, M. (1993) – Les tracés indeterminés. In GRAPP - *L'art pariétal paléolithique: techniques et méthodes d'études*. Paris: Comité des travaux historiques et scientifiques, pp. 235-241.

LUÍS, L. (2008) – Em busca dos cavaleiros com cabeça de pássaro: Perspectivas de investigação da Proto-história no Vale do Côa. In BALBÍN BEHRMANN, R. (ed.) – *Arte prehistórico al aire libre en el Sur de Europa*. ISBN 9788497185929. Junta de Castilla y León/Consejería de Cultura y Turismo, pp. 415-438.

LUÍS, L. 2009 – «Per petras et per signos»: A arte rupestre do Vale do Côa enquanto construtora do espaço na Proto-história. In SANABRIA, M.; PRIMITIVO, J. (eds.) - *Lusitanos y vettones: Los pueblos prerromanos en la actual demarcación Beira Baixa - Alto Alentejo - Cáceres*. Cáceres: Junta de Extremadura/Museo de Cáceres, p. 213-240.

LUÍS, L. (2010) – A construção do espaço numa sociedade proto-histórica: A arte rupestre do Vale do Côa. In OLIVEIRA, F.; OLIVEIRA, J.; PATROCÍNIO, M. (eds.) - *Espaços e Paisagens: Antiguidade Clássica e Heranças Contemporâneas*. ISBN 9789729814228 9729814228. Coimbra: APEC/CECH, pp. 53-67.

MALAURENT, P.; BRUNET, J.; LACANETTE, D.; CALTAGIRONE, J. (2007) – Contribution of numerical modelling of environmental parameters to the conservation of prehistoric cave paintings: The example of Lascaux ca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ISSN 1350-5033. Vol. 8, nº 2, pp. 59-76.

MARCO SIMÓN, F. (1951) – Nuevas estelas ibéricas de Alcañiz (Teruel). *Pyrenae*. ISSN 0079-8215. Vol. 12, pp. 73-94.

MARCO SIMÓN, F. (1994) – Heroización y tránsito acuático: Sobre las diademas de Mones (Piloña, Asturias). In MANGAS, J.; ALVAR, J. (eds.) - *Homenaje a J.M. Blázquez*. Vol. 2. ISBN 8478823581 9788478823581. Madrid: Ediciones Clásicas, pp. 318-348.

MARCO SIMÓN, F. (2005) – Religion and Religious Practices of the Ancient Celts of the Iberian Peninsula. *e-Keltoi: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Celtic Studies*. ISSN 1540-4889. Vol. 6, pp. 287-345.

MARKTEST [Online 2015] – Netscope. *Marktest*. [20 April 2015]. Available online:<URL:http://www.netscope.marktest.pt/>.

MARTÍNEZ-VALLE, R.; GUILLEM CALATAYUD, P. M.; VILLAVARDE BONILLA, V. (2008) – Grabados rupestres de estilo paleolítico en el norte de Castellón. In BALBÍN BEHRMANN, R. (ed.) – *Arte prehistórico al aire libre en el Sur de Europa*. ISBN 9788497185929. Junta de Castilla y León/Consejería de Cultura y Turismo, pp. 225-236.

MENÉNDEZ, M. (1984) – La cueva del Buxu. Estudio del yacimiento arqueológico y de las manifestaciones artísticas. *Boletín del Real Instituto de Estudios Asturianos*. ISSN 0020-384X. Vol. 111, pp. 143-185.

- MERCIER, N.; VALLADAS, H.; AUBRY, T.; ZILHÃO, J.; JORONS, J.L.; REYSS, J.L.; SELLAMI, F. (2006) – Fariseu: first confirmed open-air paleolithic parietal art site in the Côa Valley (Portugal). *Antiquity*. ISSN 0003 598X. Vol. 80, nº 310.
- MOURE, A. (1981) – Algunas consideraciones sobre el "mundo de los grabados" de San Roman de Candamo (Asturias). In *Altamira Symposium. Actas del Symposium Internacional sobre Arte Prehistórico celebrado en conmemoración del primer centenario del descubrimiento de las pinturas de Altamira (1879-1979)*. ISBN 8474831822 9788474831825. Madrid: Ministerio de Cultura, pp. 339-352.
- MOURE ROMANILLO, A. (1994) – Arte paleolítico y geografías sociales. Assentamiento, movilidad y agregación en el final del Paleolítico cantábrico. *Complutum*. ISSN 1131-6993. Vol. 5, pp. 313-330.
- MUSEUMWEEK [Online 2015] – #MuseumWeek. *MuseumWeek*. [22 April 2015]. Available online: <URL: <http://museumweek2015.org/en/>>.
- OBERMAIER, H.; VEGA DEL SELLA, C. de la (1918) – *La cueva del Buxu (Asturias)*. OCLC 6217520. Madrid: Museo Nacional de Ciencias Naturales.
- OLMOS, R. (1996) – Caminos escondidos. Imaginarios del espacio en la muerte. *Complutum*. ISSN 1131-6993. Vol. 6, nº 2, pp. 167–176.
- PEYTON, J. [Online 2014] – What's the Average Bounce Rate for a Website? *The Rocket Blog: Good, Bad, Ugly, and Average Bounce Rates*. [22 April 2015]. Available online: <URL: <http://www.gorocketfuel.com/the-rocket-blog/whats-the-average-bounce-rate-in-google-analytics/>>.
- PIKE, A.; HOFFMANN, D.L.; GARCÍA-DÍEZ, M.; PETTITT, P.B.; ALCOLEA, J.J.; BALBÍN-BERMANN, R.; GONZALEZ-SAINZ, C.; HERAS, C.; LASHERAS, J.A.; MONTES, R.; ZILHÃO, J. (2012) – U-Series Dating of Paleolithic Art in 11 Caves in Spain. *Science*. ISSN 0036-8075. Vol. 336, nº 6087, pp. 1409-1413.
- PINA, F. A. 2010 – *Acompanhamento Arqueológico da EN 222 (Beneficiação entre Vila Nova de Foz Côa e Almendra)*. Report to IGESPAR.
- PLISSON, H. (2009) – Analyse tracéologique de 4 pics d'Olga Grande: des outils pour les gravures de plein air? In: AUBRY, T. (ed.) - *200 séculos da história do Vale do Côa: incursões na vida quotidiana do caçadores-artistas do Paleolítico*. ISBN 9789898052148 9898052147. Lisboa: IGESPAR, pp. 436-443.
- POPE, G. A.; MEIERDING, T. C.; PARADISE, T. R. (2002) – Geomorphology's role in the study of weathering of cultural stone. *Geomorphology*. ISSN 0169-555X. Vol. 47, nº 2-4, pp. 211-25.
- POVEDA NAVARRO, A. M.; UROZ RODRÍGUEZ, H. (2007) – Iconografía vascular en El Monastil. In ABAD CASAL, L.; SOLER DÍAZ, J. A. (eds.) - *Arte Ibérico en la España Mediterránea*. ISBN 9788477848486 8477848483. Alicante: Instituto Alicantino de Cultura «Juan Gil-Albert»/Diputación Provincial, pp. 125–139.
- PÚBLICO [Online 2015] – Mudança no algoritmo de pesquisa do Google pode afectar milhões de sites. Público. [22 April 2015]. Available online: <URL: <http://www.publico.pt/tecnologia/noticia/mudanca-no-algoritmo-de-pesquisa-do-google-pode-afectar-milhoes-de-sites-1693026>>.
- QUESADA SANZ, F. (1997) – El armamento ibérico: Estudio tipológico, geográfico, funcional y simbólico de las armas en la Cultura ibérica (siglos VI-I a.C.). ISBN 2907303090 9782907303095 2907303104 9782907303101. Montagnac: Éditions Monique Mergoil.
- REAL, F. (2011) – Datas essenciais do Parque Arqueológico do Vale do Côa (1989-2011). *O Arqueólogo Português*. ISSN 0870-094X. Série V, Vol. 1, pp. 205-228.
- REBANDA, N. 1995a – *Os trabalhos arqueológicos e o complexo de arte rupestre do Côa*. OCLC 83096385. Lisboa: IPPAR.
- REBANDA, N. (1995b) – Barragem de Vila Nova de Foz Côa. Os trabalhos arqueológicos e o complexo de arte rupestre. *Boletim da Universidade do Porto*. ISSN 0871-7249. Vol. 25, pp. 11-16.
- REIS, M. (2011) – Prospecção da arte rupestre do Côa: ponto da situação em Maio de 2009. Em RODRIGUES, M. A.; LIMA, A. C.; SANTOS, A. T. (eds.) - *V Congresso de Arqueologia Interior Norte e Centro de Portugal*. ISBN 978-989-658-184-8. Casal de Cambra: Caleidoscópio/DRCN, pp. 11–123.

- REIS, M. (2012) – «Mil rochas e tal...!»: Inventário dos sítios de arte rupestre do Vale do Côa. *Portugália*. ISSN 0871-4290. Vol. 33, pp. 5–72.
- REIS, M. (2013) – «Mil rochas e tal...!»: Inventário dos sítios de arte rupestre do Vale do Côa (2a parte). *Portugália*. ISSN 0871-4290. Vol. 34, pp. 5–68.
- REIS, M. (2014) – Mil rochas e tal...!: Inventário dos sítios da Arte Rupestre do Vale do Côa (conclusão). *Portugália*. ISSN 0871-4290. Vol. 35, pp. 17–59.
- ROYO GUILLÉN, J. I. (2004) – *Arte rupestre de época ibérica. Grabados con representaciones ecuestres*. ISBN 8489944474. Castelló: Diputació de Castelló.
- RIBEIRO, J.P.C. (ed.) (2009) – *O Museu do Côa - Cadernos Côa 01*. ISBN 9789898052100. Lisboa: IGESPAR/CECL.
- RIPOLL LÓPEZ, S.; MUNICIO GONZÁLEZ, L. J., (eds.). (1999) – *Domingo García: arte rupestre paleolítico al aire libre en la Meseta*. ISBN:8478468943 9788478468942. Valladolid: Junta de Castilla y León.
- SANCHES, M. de J. & TEIXEIRA, J. C. (2013) – An interpretative approach to "devil claw" carvings: the case of river Tua Mouth Shelter (Alijó, Trás-os-Montes, Northeast Portugal). In ANATI, E. (ed.) - *XXV Valcamonica Symposium 2013. Art as a source of History*. Capo di Ponte: Centro Camuno di Studi Preistorici, pp. 59-68.
- SANCHIDRIÁN, J. L.; MÁRQUEZ, A. M.; VALLADAS, H.; TISNÉRAT-LABORDE, N. (2001) – Dates directes pour l'art rupestre d'Andalousie (Espagne). *International Newsletter on Rock Art*. ISSN 1022-3282. Vol. 29, pp. 15-19.
- SANMARTÍ I GREGO, J. (2007) – El arte de la Iberia septentrional. In ABAD CASAL, L.; SOLER DÍAZ, J. A. (eds.) - *Arte Ibérico en la España Mediterránea*. ISBN 9788477848486 8477848483. Alicante: Instituto Alicantino de Cultura «Juan Gil.Albert»/Diputación Provincial, pp. 239–264.
- SANTOJA, M. (1984) - Situación actual de la investigación del Paleolítico inferior en la cuenca del Duero. *Portugalia*. ISSN 0871-4290. Vol. 4-5, pp. 27-36.
- SANTOS, F.; SASTRE, J.; FIGUEIREDO, S. S.; ROCHA, F.; PINHEIRO, E.; DIAS, R. (2012) – El sitio fortificado del Castelinho (Felgar, Torre de Moncorvo, Portugal). Estudio preliminar de su diacronía y las plaquetas de piedra con grabados de la Edad del Hierro. *Complutum*. ISSN 1988-2327. Vol. 23, nº 1, pp. 165–179.
- SANTOS, A. T. (2012) – Reflexões sobre a arte paleolítica do Côa: a propósito de uma persistente dicotomia conceptual. In SANCHES, M. D. J. (ed.) - *Artes Rupestres da Pré-história e da Proto-história: paradigmas e metodologias de registo*. ISBN 978-989-8052-30-8. Lisboa: DGPC, pp. 39-67.
- SANZ MÍNGUEZ, C. (1997) – *Los vacceos. Cultura y ritos funerarios de un pueblo prerromano del valle Medio del Duero. La necrópolis de Las Ruedas, Padilla del Duero (Valladolid)*. ISBN 8478467130 9788478467136. Valladolid: Junta de Extremadura/Museo de Cáceres.
- SAUVET, G. (1993) – Les signes pariétaux. In GRAPP - *L'art pariétal paléolithique: techniques et méthodes d'études*. Paris: Comité des travaux historiques et scientifiques, pp. 219-234.
- SCHADLA-HALL, T. (1999) – Editorial: Public archaeology. *Public Archaeology*. ISSN 1465-5187. Vol. 2, nº 2, pp. 147-158.
- SEABRA, N.M. (ed.) (2004): *Museu de Arte e Arqueologia do Vale do Côa. Concurso para o Projecto*. ISBN 9729942609 9789729942600. Librus/IPA: Lisboa.
- SIMILARWEB [Online 2015] – SimilarWeb. *SimilarWeb*. [14 April 2015]. Available online:<URL:http://www.similarweb.com/website/arte-coa.pt?>.
- SOLTERO, A. J. [Online 2012] – 5 Reasons Twitter is Better for College Students than Facebook. *The Social U*. [14 April 2015]. Available

online:<URL:<http://thesocialu101.com/5-reasons-twitter-is-better-for-college-students-than-facebook/>>.

SOPEÑA, G. (2004) – El mundo funerario celtibérico como expresión de un «ethos» agonístico. *Historiae*. ISSN 1697-5456. Vol. 1, pp. 56–108.

SOPEÑA, G. (2005) – Celtiberian Ideologies and Religion. *e-Keltoi: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Celtic Studies*. ISSN 1540-4889. Vol. 6, pp. 347–410.

STORIFY [Online 2014] – Storify. *Storify*. [9 April 2015]. Available online:<URL: <https://storify.com/>>.

SUNDSTROM, L.; HAYS-GILPIN, K. (2011) – Rock Art as Cultural Resource. In KING, T. (ed.) – *A Companion to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ISBN 9781444396065 1444396064 9781444350746 1444350749 9781444396041 1444396048. Chichester: Wiley-Blackwell, pp. 351-70.

THOMAS, S.; LEA, J. (2014) – Public participation in archaeology. ISBN 9781843838975. Rochester, NY: The Boydell Press.

TRATEBAS, A. M. (2004) – Biodeterioration of prehistoric rock art and issues in site preservation. In ST. CLAIR, L.; SEAWARD, M. (eds.) – *Biodeterioration of Stone Surfaces: Lichens and Biofilms as Weathering Agents of Rocks and Cultural Heritage*. ISBN 1402028032 9781402028038 1402028458 9781402028458.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 195-228.

VALLADAS, H.; MERCIER, N.; FROGET, L.; JORONS, J.L.; REYSS, J.L.; AUBRY, T. (2001) – TL Dating of Upper Palaeolithic Sites in the Côa Valley (Portugal). *Quaternary Science Reviews*. ISSN 0277-3791. Vol. 20, nº 5-9, pp. 939-943.

VILLAVARDE BONILA, V. (1994) – *Arte paleolítico de la cova de Parpalló. Estudio de la colección de plaquetas y cantos grabados y pintados*. ISBN 8477959633 9788477959632. València: Servei d'Investigació Prehistòrica.

VILES, H. A. (2002) – Implications of future climate change for stone conservation In: SIEGISMUND, S.; WEISS, T.; VOLLBRECHT, A. (eds.) – *Natural stone, weathering phenomena, conservation strategies and case studies*. ISBN 1862391238 9781862391239 1862391297 9781862391291. London: Geological Society, pp. 407-18.

ZILHÃO, J. (1995) – The age of the Côa valley (Portugal) rock-art: validation of archaeological dating to the Palaeolithic and refutation of "scientific" dating to historic or proto-historic times. *Antiquity*. ISSN 0003 598X. Vol. 69, pp. 883-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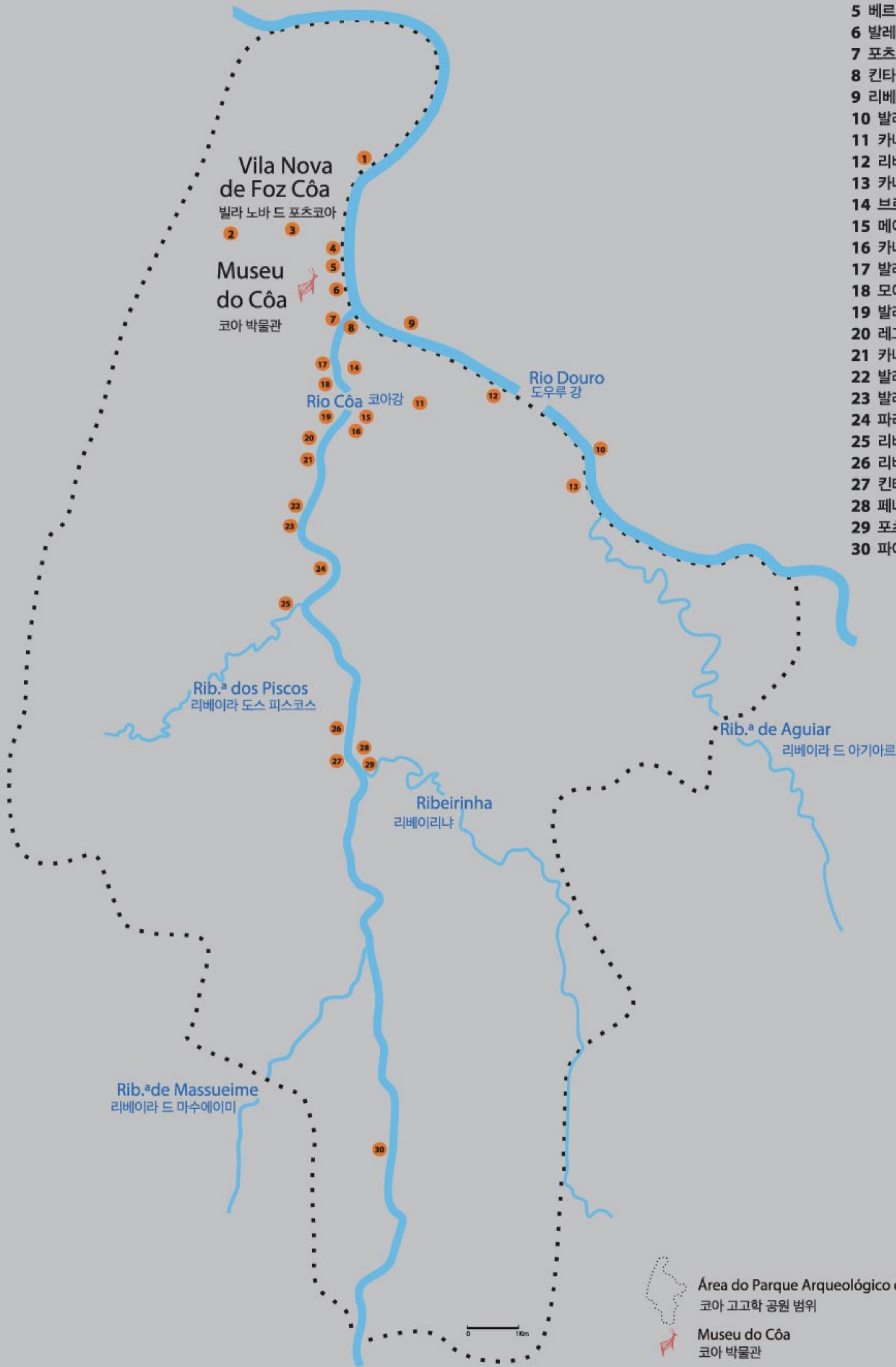
ZILHÃO, J. (ed.) (1997a) – *Arte rupestre e Pré-história do Vale do Côa: trabalhos de 1995-1996*. ISBN 9728087373 9789728087371. Lisboa: Ministério da Cultura.

ZILHÃO, J. (1997b) – *O Paleolítico Superior da Estremadura Portuguesa*. ISBN 9728288506 9789728288501. Lisboa: Edições Colibri.

ZILHÃO, J. (2003) – Vers une chronologie lus fine de l'art paléolithique de la Côa: quelques hypothèses de travail. In BALBÍN BEHRMANN, R.; BUENO RAMÍREZ, P. (eds.) - *Primer symposium internacional de arte prehistórico de Ribadesella. El Arte prehistórico desde los inicios del siglo XXI*. ISBN 8492190981 9788492190980. Ribadesella: Asociación Cultural Amigos de Ribadesella, pp. 75-90.

# 코아 계곡의 구석기 암각화 유적 분포도

## Sítios de arte rupestre paleolítica do Vale do Côa



- 1 발레 다 카사 Vale da Casa
- 2 투다오 Tudão
- 3 발레 드 카브로즈 Vale de Cabrões
- 4 불라 Bulha
- 5 베르멜로사 Vermelhosa
- 6 발레 드 조세 에스테베스 Vale de José Esteves
- 7 포츠 두 코아 Foz do côa
- 8 키타 다스 툴라스 Quinta das Tulhas
- 9 리베이라 드 우로스 Ribeira de Urros
- 10 발레 드 조안 에스퀘르도 Vale de João Esquerdo
- 11 카나다 다 모레이라 Canada da Moreira
- 12 리베이라 다 카브레이라 Ribeira da Cabreira
- 13 카나다 두 아로보 Canada do Arrovão
- 14 브로에이라 Broeira
- 15 메이자파오 Meijapão
- 16 카나다 두 아멘도알 Canada do Amendoal
- 17 발레 두 포르노 Vale do Forno
- 18 모이노스 드 시마 Moinhos de Cima
- 19 발레 데 모이노스 Vale de Moinhos
- 20 레고 다 비데 Rêgo da Vide
- 21 카나다 두 인페르노 Canada do Inferno
- 22 발레 드 비데이로 Vale de Videiro
- 23 발레 드 피게이라 Vale de Figueira
- 24 파리제우 Fariseu
- 25 리베이라 드 피스코스 Ribeira de Piscos
- 26 리베이라 다스 코르테스 Ribeira das Cortes
- 27 키타 다 바르카 Quinta da Barca
- 28 페나스코사 Penascosa
- 29 포츠 다 리베이리냐 Foz da Ribeirinha
- 30 파이아 Faia